Weekly 공감
2011.03.23 NO.102
gonggam.korea.kr

"바다보다 푸르렀던 당신들의 젊음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P31~51

윤덕용 前 천안함 합조단장 "우리는 진실을 밝혔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 "이젠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도전" P6~7

긴급 점검 대지진 일본 방사능 누출 비상… "한국은 안전하다" P16~29

미안하다, 사랑한다

신달자 시인

서해바다는 지금도 출렁이고 있다. 그 바다는 지금 울고 있는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지금 생각해도 그것은 안 될 일이었다고, 서해바다여 너는 몸부림치며 울고 있는가. 결코 그 바다는 잊지 않았으리. 그래, 3월 26일이었다. 벌써 1주년이다. 푸른 동맥의 젊은 우리의 아들들이 속수무책 눈을 감아야 했던 천안함의 비극, 그 통곡조차 부질없었던 안타까운 우리의 아들들의 죽음이 벌써 1년이 지났는가.

천안함의 피격은 이 나라의 피격이었고 우리 가족들의 피격이었으며 우리나라의 희망에 대한 피격이었다. 울컥 자신을 돌아본다. 1년 전 그 푸른 생명 46명의 시신 앞에 오열했던 어머니 아버지들, 대한민국의 통한을 누구를 향해 울어야 할지도 모르는 처절한 분노를 바라보면서 그 슬픔 때문에 밥숟가락을 입에 넣지 못하다가 허공을 향해 발악 같은 외마디를 지르다가 서서히 그 아픔을 잊지는 않았을까 자신을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46명의 우리의 아들들이여! 우리나라도 우리 가족도 우리의 푸른 희망도 상처는 입지 않았다. 그대들은 결코 이 나라의 기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 그대들은 지금도 저 서해의 푸르른 바다를 지키며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하늘로 살아 있다는 것을 알아 다오.

그대들은 아는가. 서해 백령도 연화리 해안을 기억하는가. 그곳에 그대들의 위령탑이 세워질 것이다. 그 위령탑에는 대한민국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그대들의 젊은 피가 새겨질 것이다. 영원히 살아 있을 그대들의 뛰는 영혼이 설 것이다.

벌써 1주년이다. 통곡조차 부질없던 안타까운 우리 아들들의 죽음이 벌써 1년이 지났는가. 그러나 46명의 우리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은 결코 이 나라의 기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저 서해의 푸른 바다를 지키며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하늘로 살아 있다는 것을 알아다오.

슬프다고 말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우리들의 비극조차 잘 다스려 그대들을 위로하고 안아주고 싶다.

대한민국의 아들들이여!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영원히 잊지 않고 서해의 푸른 바다를 바라볼 것이다. 그대들의 목숨을 귀하게 받들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 그렇게 살 것이다. 그대들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어느 하루도, 아니 어느 한순간도 그대들을 잊지는 않으리, 늘 살아 있을 우리의 대한민국의 푸른 동맥들이여!

인간은 결코 오만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비극으로 우리는 지금 슬프다. 지금 일본은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예민한 관계였지만 그것이 무엇이냐. 센다이 해변의 쓰나미는 죽어도 잊지 못할 것 같다. 인간의 과학이 자연 앞에서 몰락하는 이 무서운 재해 앞에 일본은 지금 많은 것을 잃었다. 인류애가 만발하여 꽃을 피우는 이 우정의 힘으로 비극을 이기는 인간의 힘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이기심을 버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일본의 정신은 비극 속에서 빛났다. 배려의 꽃을 전 우주에 보여준 계기 또한 서로 돕는 사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약하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어떤 위기도 함께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일본은 일어서야 한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은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 다오. G

Contents NO.102 2011.03.23 통권 203호

32

기획특집

천안함 46용사들이여!

772함 수병은 귀환(歸還)하라…
온 국민의 애타는 목소리를 들으셨겠지요.
적의 기습과 맞닥뜨린 그대들의 귀환이 서해의 급류에 밀려 다소 늦어졌지만 가족은 온 가슴으로 그대들을 안았고 국민은 온 마음으로 그대들을 품었습니다. 해군 초계함 772 천안함 수병들, 조국수호의 신성함을 일깨워준 그대들은 조국의 산하를 지키는 푸른 영령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표지 이야기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희생된 아들 고 민평기 상사의 사망보상금 1억원을 방위성금으로 내놓은 윤청자 여사. 해군은 어머니의 회한이 담긴 성금으로 함정용 중기관총을 구입했다. 사진·조선DB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3.2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주)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56

12

16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3월 24일(목)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석해균 선장 회복은 국민의 승리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살린 이종국 교수님의 기사가 돋보였습니다. 석 선장을 과연 살릴 수 있을지는 국민의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의식이 회복되어 미소를 짓고 간단한 대화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 의료기술의 승리요, 국민의 승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양순**

소통칼럼으로 올바른 자녀 소통법 깨달아

"'소통의 대화법'의 한 페이지 나온 글이었지만 읽고 또 읽고 외울 정도로 되었답니다. 사춘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부모인지라 더욱더 마음에 와 닿았나 봅니다. 부모들 마음대로 해서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키는 대로 내뱉곤 하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니 반성이 되더군요. 자식을 대하는 것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황희**

외국인 지원책 더 많이 개발해야

"기획특집 '등록외국인 1백만 시대'를 읽고 이제 우리나라도 글로벌 국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양한 외국인 지원책을 통해 외국인들이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정책과 지원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주형**

나무 심기에 많은 분이 동참했으면

"'당신의 이름으로 나무를 심어주세요' 기사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꿈과 희망을 심는 사업이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완수하겠다는 뜻 깊은 일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푸른 지구 만들기에 보다 많은 분이 동참했으면 합니다." **유은경**

'에너지 절약' 우리 모두의 일

"주부로서 '에너지 절약' 기사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리비아 사태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 저희 집도 가족회의를 해서 아끼기로 했답니다. 모두가 절약을 생활화했으면 합니다." **김유리**

이런 기사 실어주세요!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과 어떤 매뉴얼로 국민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지 또한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일**

이 기사, 아쉬워요

"기사 제목과 사진이 일치했으면"

'평창의 100일' 기사에서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평창주민들의 땀방울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사 후반부에 잠깐 다뤄진 뮌헨 지역의 올림픽유치반대 시위와 그 현장 사진이 기사제목과 맞지 않는 것 같아 아쉽네요.

김민정 (대학생,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 알려줬으면"

〈공감〉에 실리는 여행지가 다른 매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름난 장소가 많습니다. 이왕이면 많이 소개되지 않은 곳이 실렸으면 합니다. 풍경 여행, 시골 장터 기행, 특산물 기행 등 다양한 내용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경숙 (주부,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해당 기사 업로드 날짜가 늦은 듯"

미소국가대표 기사 중에서 3월 11일까지 4기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기사 업로드 날짜가 8일임을 감안할 때 시일이 촉박한 것 같아요. 또한 기사의 서두의 내용과 다른 사진을 써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듭니다.

박희선 (주부,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단순 정보보다 사례를 들어주세요"

'긴급점검 물가와 에너지절약' 기사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신선제품, 석유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학원비 편법인상 단속 같은 제도를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례를 들어주었으면 더 확실하게 알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송혜림 (대학생,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공감퍼즐

	1		2		3
	4				
			5		
		6			
7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3월 29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2. 단군왕검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4. ♬~봄이 오면 산에 들에 OOO 피고~♪
5. 나라를 위해 싸우거나 임무를 수행하다가 돌아가신 분의 자녀. 순국장병 OOO.
6. 말로 전하여 내려옴. OO 설화.
7. 천안함 구조 작업 중에 순직한 '대한민국 UDT 영웅'.

세로

1.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해일.
2. "칭찬은 OO도 춤추게 한다."
3. 성품이 착한 남자와 여자란 뜻으로, 착하고 어진 사람들을 이르는 말.
5. 석유가 나는 곳. "우리나라는 아부다비 OO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죠"
6. 재해나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 보호함.

〈Weekly 공감〉 100호(3월 9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시나위 **3** 기부 **4** 리비아 **6** 개학 **7** 감또개
세로 **1** 시부 **2** 위클리공감 **3** 기지개 **5** 아무개 **8** 또래

〈Weekly 공감〉 100호 '공감 퍼즐' 당첨자

강신율 · 충남 논산시 취암동
권기호 ·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김창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
최정민 ·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홍주영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알립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지식경제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가정, 학교, 사무실, 상가 등 우리 주변에서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중학생 이상의 모든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접수 기간 | 4월 30일까지
접수 방법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co.kr) 또는 우편 접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대로 298 에너지관리공단 생활실천홍보실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접수 담당
결과 발표 | 최종발표 5월 말 예정
지원 혜택 | 상금 수여 외 공기업 인턴 취업, 국내 우수 에너지 현장 무료견학 등
에너지관리공단 공모전 사무국 ☎ 1577-4923 www.kemco.co.kr

'문화재청 50주년' 기념 캐치프레이즈 공모

문화재청 발족 50주년을 맞아 '문화재청 50주년' 기념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다. 문화재청의 과거 50년 성과와 함께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구호를 20자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접수 기간 | 3월 30일까지
접수 방법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 제출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이메일)bhk6569@korea.kr 또는 kim7897@korea.kr
결과 발표 | 4월 7일
지원 혜택 | 시상 외 소정의 상금 수여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 042-481-4817~8 www.cha.go.kr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아주세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기투표가 한창(11월 10일까지)인 가운데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화 투표 | 001-1588-7715, 영어 안내 음성 후 '삑' 소리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입력한다.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면 종료. 전화료 약 1백40원.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www.jejun7w.com

'구제역과의 전쟁' 지휘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제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꼭 따야죠"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했던 구제역이 진정되고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제역의 위기정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지난해 12월 29일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구제역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해 왔다. 맹 장관은 〈위클리 공감〉과의 인터뷰에서 "링거를 맞으며 버틸 정도로 무척 힘든 시간도 있었다"고 술회했다.

"2010년 11월 28일 최초 발생 이후 지난 1월에는 많은 가축이 구제역으로 매몰됐으나 다행히 2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2월 26일 이후에는 신규 발생지역은 없고 기존 발생지역 중 일부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이 안정화되고, 진정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대본)을 맡고 있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이다. 맹 장관은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위기정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구성된 중대본의 본부장을 맡아 구제역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해 오고 있다.

중대본의 본부장을 맡아 구제역 대책을 선두에서 지휘해 온 소감을 묻자 맹 장관은 "질문을 받으니 문득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이 시간이 지나간 것 같다"면서 "구제역 방역과 매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대본은 물론 지자체 공무원, 관련 부처 등 모든 관계관들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가 소감을 말하며 "정말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냈고 밤을 꼬박 새운 적도 있었다"고 술회할 때는 중대본을 이끄는 공직자로서의 고뇌가 어떠했나를 엿볼 수도 있었다.

신종플루에 이어 두번째로 중대본이 만들어졌는데 구제역 차단과 사후관리에서 중대본이 하고 있는 역할을 소개해 주시죠.

"중대본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문화부 등 여러 부처의 전문성 높은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고 23명의 민간 자문단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예산, 장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일선 방역현장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해결해 왔습니다.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한 회의에서 주요 사항에 대한 토의를 하고, 필요한 정책적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동이 많은 설연휴 기간 동안에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대국민 협조사항을 알리고 철저한 방역활동을 벌였습니다. 백신접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신속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매몰지 환경오염에 대비해 전국 매몰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보완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등 관련기관들과 공조는 매끄럽게 진행되었는지요.

"이번에 매몰지 정비에 총 3백60억원이 투입됩니다. 과거 같았으면, 재원을 누가 분담하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행안부, 농림부, 환경부가 3분의 1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중대본을 통해서 조정하고 협력해서 모든 부처가 한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중대본 발족 이후 지방 현장을 17회 방문하여 직접 점검하고 대책회의를 주재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에 논산시청을 방문해 호남지역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 내자고 참석한 공무원들과 결의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구제역이 호남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서 무척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매몰지 관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국 매몰지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된 정비필요 매몰지 4백17개소에 대해서 3월 말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침출수를 정기적으로 추출해 처리하고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몰지 주변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관리 실명제를 도입했고, 지자체별 특별관리단을 적극 활용하여 매몰지를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문제로 국민들이 먹는 물의 안전성을 놓고 불안해하자 매몰지 인근 지역에 상수도 설치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침출수로 인해 매몰지 인근 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된 사례는 아직 없고 오염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몰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몰지 반경 5백미터 이내 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4천3백13억원을 지원, 약 3천4백12킬로미터의 상수도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설연휴 이전이 가장 어려운 고비였습니다. 당시 매몰 마릿수가 안타깝게도 하루 10만 마리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설연휴 기간에도 정신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구제역 방역에 매달렸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버틸 정도로 무척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구제역 방역에 집중하다 보니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는데요.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으신 분과 부상을 당하고·질병을 얻은 분이 있습니다. 모두 아홉 분의 공무원과 군인 한 분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고 1백50여 명의 공무원이 크고 작은 부상·질병을 앓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분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공상처리를 하고, 치료비 등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 대책이 마련됐는지요.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 한창 가족을 부양할 40~50대가 대부분입니다. 어린 자녀도 있을 테고, 남겨진 가족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2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하시다가 공무수행 중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남겨진 가족의 생계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경북 영양군에서 근무하다 돌아가신 공무원 유족에게는 불과 3천5백만원의 위로금만 지급되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사망한 경우라면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유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분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 생계 때문에 막막해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부상자나 질병 발생자는요.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현재 제도에서는 최대 3년까지만 치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 방역 중에도 안타깝게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진 분이 있습니다.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앞으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을 통해 구제역 청정국을 유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번에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당분간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신청은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12개월 동안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앞으로 구제역 조기종식과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1백 퍼센트 실시토록 하고 소독·예찰 등 농가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G

글 · 김성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 UAE 정상외교의 성과

"100년 동반자 관계 새로운 여정 시작"

한국과 UAE가 한층 끈끈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UAE를 방문해 10억 배럴 이상의 유전을 확보하는 등 한국과 UAE는 에너지, 환경, 보건의료, 국방 등 다방면에서 협력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다. 2009년 UAE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계기로 맺어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봇물이 터졌다는 표현에 걸맞은 성과였다. 지난 3월 12일에서 14일까지 펼쳐진 정상외교에서 한국과 UAE는 미래 신성장동력, 보건의료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양해각서(MOU)를 무더기로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양국의 1백년간의 동반자 관계는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외교의 백미는 역시 한국이 UAE 아부다비 유전개발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최소 10억 배럴 이상의 유전을 확보하게 됐다.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에너지 안보가 일층 강화된다는 의미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에너지 분야 / 최소 10억 배럴 유전 확보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극소수 석유 메이저 기업들만이 참여해 온 '꿈의 지역'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3일 UAE를 공식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할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전했다. 한국이 아부다비의 유전개발에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이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그 규모다. 최소 10억 배럴 이상으로 한국의 해외 유전개발 역사상 가장 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백10조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한 최대 유전은 베트남 15-1 광구로 매장량은 1억 배럴이었다.

이번 유전확보의 특징은 두 가지의 권리를 부여받은 점이다. 기존 대형 유전에 참여하는 조광권과 아직 생산을 시작하지 않은 미개발 유전에 대한 독점적 개발 및 운영권이 그것이다.

조광권을 부여받을 대상은 최소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유전들이다. 아부다비의 대형 유전들의 조광권은 2013년부터 계약이 만료된다. UAE 정부는 내년부터 이 유전들에 대한 재계약을 진행하는데 한국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다. 이 유전들은 규모도 규모려니와 이미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곳들이어서 탐사 리스크가 없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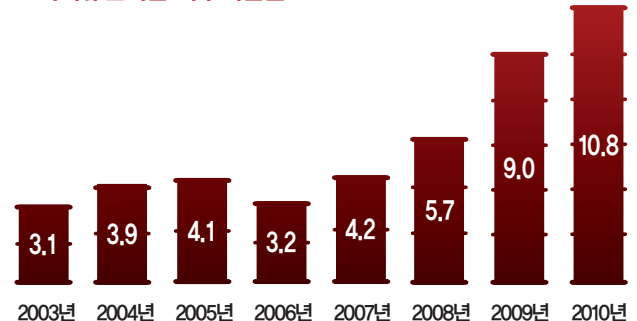
미개발 3개 유전에 대한 독점적 권리도 확보했다(그림 참조). 이 유전들의 발견 원시부존량은 총 5억7천만 배럴로 규모는 대형 유전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에 못잖은 의미가 있다.

에너지 자주개발률 15퍼센트로 크게 향상

무엇보다 지분을 1백 퍼센트까지 확보할 수 있어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향후 유전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해외 유전개발은 일부 지분참여 형식

미개발 3개 광구 위치도

해외유전개발 자주개발률 단위 비율(%) 자료 지식경제부

조선DB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수주한 UAE 원전의 예정부지 기공식에 참석해 원전 건설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독자적인 개발과 운영 경험을 쌓기 어려웠다. 석유공사는 이미 이 유전들에 대한 1차 기술평가를 마친 상태다. 2013년부터 하루 최대 3만5천 배럴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유 관련 비상사태를 보완할 수 있는 협상에도 합의했다. 먼저 미개발 유전에서 생산되는 우리 측 물량 1백 퍼센트를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공급이 현격히 부족한 경우 원유수급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략 비축유도 사실상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부다비의 원유 6백만 배럴을 우리나라 비축시설에 무상 저장하고 유사시에는 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 7천억원 상당의 원유를 단지 비축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UAE로서는 무상으로 비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UAE 아부다비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최우선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도 얻었다. 증산되는 원유 중 하루 30만 배럴까지 누구보다 빨리 살 수 있어 비상시 원유수급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부다비의 유전을 확보하면서 한국은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을 지난해 10.8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UAE와 이라크 등 중요 전략지역을 지속적으로 공략해 임기 중에 자주개발률을 일본 수준인 20퍼센트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한편 이번 유전확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중동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1970년대에 진출한 일본을 끝으로 이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유전을 확보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산유국들이 원유개발을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자국 기업을 메이저로 육성하고 있어 중동 유전 진출의 벽은 석유 메이저들도 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원유개발 업계 77위(한국석유공사 기준)에 불과한 한국이 성공을 한 것이다.

원전 기공식 참석… “한국형 좋은 모델 될 것”

석유 메이저들이 중동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매장량과 생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UAE를 비롯한 중동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의 57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우리가 진출하게 된 아부다비의 매장량은 약 1천억 배럴에 달한다.

채산성도 높다. 생산단가가 월등히 낮기 때문이다. 배럴당 세계 평균 단가는 18달러인 데 비해 중동은 6달러에 불과하다. 아부다비는 더 낮다. 세계 평균의 10분의 1이 채 안되는 1.5달러다. 게다가 UAE는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어 더욱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화된 것은 양국 최고 지도자들의 강력한 정치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원개발은 통상 수년간 협상을 진행해도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힘든 데 비해 이번 협상은 불과 1년 만에 타결된 것도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지난해 UAE 원전수주 이후 양국 최고 지도자들의 신뢰는 한층 공고해졌다. 당시 체결된 '1백년간의 경제협력 파트너'에 따라 한국은 UAE 아부다비의 미래전략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동반자 관계 차원에서 유전 진출을 요구했고 아부다비의 최고 지도자들이 통치권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 대통령은 아부다비의 지도자들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와 특사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설득전을 벌였다. 한국 측의 경험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던 아부다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화라는 우리 측의 설득에 서서히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석유 비즈니스적으로만 생각하면 한국을 참여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단순한 유전개발 사업자가 아니고 1백년 앞을 내다보는 UAE 아부다비의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크게 생각해 달라." (이 대통령이 아부다비에 보낸 메시지)

이 대통령은 2009년 한전 컨소시엄이 수주한 원자력발전소 4기의 예정부지 기공식에 참석해 양국의 우호관계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 원전이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UAE의 한국형 원전은 중동 지역에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사 발주처인 에미리트 원자력공사(ENEC)는 UAE 원자력규제위원회(FANR)로부터 부지 준비 허가를 받아 기초작업과 임시숙소 및 사무소 등 건설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공사는 건설허가가 나오는 2012년 6월경에 시작될 예정이다.

환경 및 녹색성장 분야 / 이 대통령, 자이드 국제환경상 수상

UAE 정부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도 MOU를 체결했다. 2010년 서울에 설립된 GGGI는 다양한 국제 전문가와 협력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녹색성장 분야의 국제적 싱크탱크이자 액트탱크(ACT TANK)로서 2009년 코펜하겐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5)에서 이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적 자산으로서 설립을 제안한 독립적 비영리기관이다.

이번 MOU를 계기로 GGGI는 UAE 정부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수립 지원 ▲GGGI 전문가 파견 ▲녹색 분야 공동연구 등을 제공한다. 아부다비에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포괄하는 GGGI 지역 연구소도 건립하고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시를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MOU와 별도로 UAE 정부는 GGGI에 3년간 1천5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GGGI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 전략은 UAE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UAE 공식방문 중에 이 대통령이 환경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자이드 국제환경상'을 수상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녹색

조선DB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이드 국제환경상'의 최고상인 글로벌 리더십 분야 상을 수상했다.

한국 의료기관의 UAE 진출의 길이 넓어진 것도 이번 정상외교의 성과로 꼽힌다. 사진은 삼성두바이병원.

UAE 아부다비에 수출된 석유시추선.

성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상은 고(故) 세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전 UAE 대통령의 환경실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돼 환경 분야 공로자에게 시상한다.

이 대통령은 수상 연설을 통해 "아부다비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두바이의 첨단도시 건설에 이르기까지 UAE는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산유국의 하나이면서도 '석유 이후 시대'를 가장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국가"라며 "한국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UAE와 함께 보다 나은 청정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 / UAE 환자 유치 크게 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한국과 UAE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UAE보건부,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 등 3개 부·청과 보건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UAE의 의료관광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두바이보건청은 한국에 자국의 환자를 보낼 병원을 지정하고 환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한 UAE대사관에 서울오피스를 연다.

UAE보건부와 아부다비보건청은 환자송출을 위한 사전작업을 시작한다. 환자수송과 언어 등 준비상태와 만족도를 점검하는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UAE는 매년 약 8만5천명의 환자를 해외에 송출하고 있다. 자국 내에서 치료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치료비는 약 20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으로 오는 환자는 2009년 6백11명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백7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퍼센트 가량 늘었다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MOU는 한국으로 오는 UAE 환자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의료기관이 UAE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넓어졌다. UAE 보건부와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이 건강검진센터, 재활병원 설립과 병원 위탁운영 등에 한국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기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UAE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관은 삼성의료원과 우리들병원, 원전클리닉 등 3곳뿐이지만 해외 의료기관의 진출은 활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병원 위탁운영은 UAE의 국가적 관심사로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과 클리블랜드클리닉, 태국의 범룽라드병원, 오스트리아의 VAMED 등이 진출해 있다. 한국의 의료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먼저 한국의 의사들이 UAE를 방문해 환자치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의사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UAE 측에서 선호하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도 나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인 연수프로그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국제연수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양국 모두 혜택을 공유하고 건강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분야"라며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G

글·변형주 기자

동산방화랑

검은 비단에 금으로 그린 대나무. 탄은 이정의 1609년작 〈니금세죽〉. 작품의 우측 상단에 상강야우(湘江夜雨)라는 화제가 적혀 있다. 중국의 대나무 명산지 '상강'에 밤비가 내리고 댓잎이 아래로 축축 늘어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작품 좌측 상단에는 그림을 그린 시기와 장소가 적혀 있다.

공재 윤두서(恭齋 尹斗緖; 1668~1715)의 〈수하정관(樹下靜觀)〉.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장면을 원하여 화면에 변화를 주면서 표현한 작품이다.

조선 그림의 봄나들이

조선의 자랑 '3원3재' 포함 33인 고서화 공개

요즘 미술계에서 고서화(古書畵) 전시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간송 미술관의 봄·가을 정기전이나 삼성미술관 리움의 고미술 전시 등을 빼고는 우리 옛 그림을 볼 기회가 드물다. 미술관이 그럴진대 화랑가 사정은 더욱 심하다. 일단 전해 오는 고서화 수량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잦은 전란 속에 피란 가며 땅에 묻어 놓을 수 있었던 도자와 그림의 운명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묘사하는 풍속화와는 달리, 일반적이고 유형화된 인물과 산수 배경을 다양한 기법을 동

수운(峀雲) 유덕장(柳德章;1694-1774)의 〈설죽도(雪竹圖)〉. 〈설죽도〉를 보면 수운의 이런 서정적이고 운치있는 대나무 그림의 멋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농묵과 담묵으로 공간감을 나타내었고 눈에 쌓인 괴석을 아주 현대적으로 설정하고서 거기에 관지와 낙관을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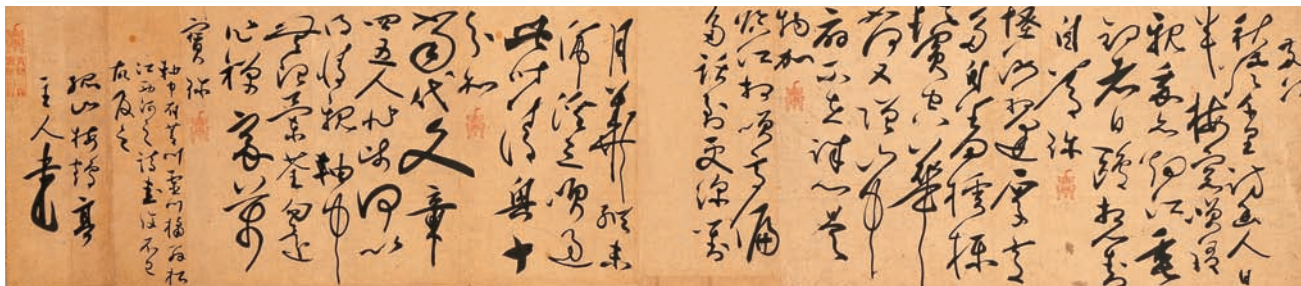
… 옛 향취에 젖다

서울 인사동 동산방화랑(대표 박우홍)에서 3월 28일까지 열리는 '조선후기 회화전-옛 그림에의 향수'는 그런 점에서 단연 눈길을 끈다. 1983년 '조선후기 회화전'을 열어 미술사학계에서 호평받았던 동산방화랑이, 똑같은 주제로 28년 만에 여는 전시다.

이른바 조선시대 '3원3재', 즉 단원(檀園) 김홍도, 혜원(蕙園) 신윤복, 오원(吾園) 장승업, 겸재(謙齋) 정선, 현재(玄齋) 심사정, 관아재(觀我齋) 조영석과 공재(恭齋) 윤두서 및 추사(秋史) 김정희 등 내로라하는 조선 후기 작가 33명의 50여 점이 나온다. 80퍼센트 가량이 새롭게 공개되는 작품들이다.

전시작은 산수·인물·풍속·화조·사군자·서예 등을 포괄한다. 조선후기 회화의 면모를 두루 살필 수 있다.

28년 만에 '조선후기 회화전-옛 그림에의 향수'展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탄은(灘隱) 이정의 '니금세죽(泥金細竹)'과 고산(孤山) 황기로의 '시고(詩稿)' 4수다. 둘 다 임진왜란 이전의 작품이라 희귀성이 강하다. '니금세죽'은 먹물 들인 비단에, 아교에 금가루를 갠 니금으로 그린 대나무 그림이다. 위로 뻗어 올라가는 댓잎과 아래로 늘어진 댓잎의 대비되는 모습이 두 폭의 대형 화면에 담겼다.

고산(孤山) 황기로(1521~67)의 〈시고(詩稿)〉 4수. 조선시대 초서의 최고 명필로 꼽혔던 고산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위로 뻗어 올라가는 모습에는 '기원눈엽(淇園嫩葉)'이라는 화제를 써 넣어 기원에 어린 잎이 돋아나는 것이라 했고, 아래로 늘어진 모습에는 '상강야우(湘江夜雨)'란 화제를 써 넣어 밤비 내리는 상강에 댓잎이 처지는 모습임을 말해 준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니금은 고급 재료로 고귀한 느낌을 잘 전해 주지만 수묵과 달라서 번지기의 농담과 필치의 강약을 나타내기 힘든데 이 작품에서는 탄은의 굳세면서도 능숙한 운필이 잘 살아나 가히 명작이라 할 만하다"고 평했다.

조선시대 초서 서예가로 이름을 날렸던 황기로의 '시고' 4수는 얼마 전 보물(제1625-2호)로 지정돼 더욱 관심을 모은다. 고산은, 벼슬은 별좌에 그쳤지만 초서를 잘 써서 봉래 양사언과 함께 조선시대 서예사에서 초서로 첫손 꼽히는 인물이다.

보물로 지정된 황기로의 '시고' 4수도 전시

정선의 '부아암(負兒巖)'은 겸재가 북악산을 그릴 때 빼놓지 않았던, 아기를 등에 업은 형상의 바위 그림이다. 당시 겸재가 살던 청운동 집에서 잘 보이는 위치라, 여러차례 그렸다. 작고 간결한 필치의 이 작품은 남근석의 이미지를 강조해 유머러스하다.

김홍도의 '어해도(魚蟹圖)'는 게 한 쌍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포착했다. 일제시대 공개됐으나, 그 후로 실물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민영환의 구장품(舊藏品)으로 일제시대 전시에 한 번 나온 후, 종적을 감춰 많은 이들이 전시도록으로 기억하는 작품이다.

인물·말 그림에 능했던 윤두서의 '주감주마(酒酣走馬)', 표암(豹菴) 강세황의 산수도 '장송유혜도(長松幽蹊圖)', 수운(岫雲) 유덕장의 '설죽도(雪竹圖)'는 화가의 전형적인 화풍을 보여준다. 산수와 화조에 두루 능했고 특히 꿩을 잘 그렸던 심사정은 산수도, 화조도, 꿩그림까지 3점을 선보인다.

당대 묵란도(墨蘭圖)의 라이벌이었던 흥선대원군 석파(石破) 이하응과 운미(芸楣) 민영익의 난 그림을 한자리에서 비교하는 즐거움도 있다. G

글·양성희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1707~1769)의 〈꿩(雙雉圖)〉. 심사정은 산수와 화조에 모두 능했는데 특히 꿩 그림을 잘 그려 여러 폭 전한다. 풀과 나무 속에 들어 앉은 꿩들은 아주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화면에는 화사한 빛이 감돈다.

1,800,000,000원

18세기 '백자청화운룡문호' 국내 고미술품 경매 최고가 경신

국내 고미술품 경매사상 최고가 기록이 경신됐다. 지난 3월 17일 열린 마이아트옥션(대표 공상구)의 제1회 경매에서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백자청화운룡문호(白磁靑畵雲龍文壺)'가 18억원에 낙찰됐다. 시작가는 14억7천만원. 지금까지 국내 고미술품 경매 최고가 작품은 2010년 옥션단 경매에서 17억1천만원에 낙찰된 19세기 김홍도의 금강산 화첩 〈와유첩(臥遊帖)〉이다. 해외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 고미술품의 최고 낙찰가는 지난 1996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백자철화운룡문호(白磁鐵畵雲龍文壺)'가 기록한 8백41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0억원)였다.

이번 경매에서 낙찰된 '백자청화운룡문호'(높이 59.3센티미터)는 일본인 소장자가 내놓은 것으로 발톱이 다섯 개 달린 용(龍)이 그려져 있어서 '오조용준(五爪龍樽)'이라고도 불린다. 용 그림은 왕을 상징한다.

윤용이 명지대미술사학과 교수는 "18세기 이전에는 왕실용 도자기에 용 발톱이 3~4개였다가 이후 비로소 다섯 개가 된다"며 "오조룡은 중국 황제를 상징하므로 중국에 눌려 있던 조선의 자존 의식이 높아진 것과도 연관 있다"고 설명했다. '용의 발톱' 숫자가 많을수록 도자기 가격이 올라간다.

윤 교수는 "높이가 50센티미터를 넘고, 오조룡이 그려진 18세기 후반 백자는 국내외를 통틀어 10개 미만이 남아 있는 희귀작"이라면서 "왕이 연회에서 어주(御酒)를 담아 하사하거나 매화 가지를 꽂아 장식하는 용도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3월 23일(현지시각) 열리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도 발톱이 다섯 개인 용이 그려진 18세기 조선 왕실용 청화백자가 출품된다. 높이는 57.7센티미터. 배혜경 크리스티 한국사무소장은 "추정가를 3백만 달러(34억2천만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7일 국내 고미술 경매사상 최고가인 18억원에 낙찰된 '백자청화운룡문호'.

글 · 곽아람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방사성물질 한국까지 못 온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제트기류 타도 별 다른 영향 없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물질 유출사고가 어떤 최악의 상황에 이르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윤철호 한국원자력기술원장은 “일본 지진 이후 우리나라의 방사선 준위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 낙진(落塵) 피해 없는 3가지 이유

그래픽 · 유재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3월 15일 일본 대지진, 지진해일, 원전폭발 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방사선 피폭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은 기류가 정확하게 우리나라를 향해 불고 격납용기의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돼 후쿠시마 원전 2호기 원자로심이 1백퍼센트 용융(융해)됐다는 가정하에 이뤄졌다.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2호기의 노심이 1백퍼센트 녹아 격납용기 밖으로 설계누설률(0.5퍼센트/일)의 30배가 누출돼도 울릉도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피폭선 양(쪼이는 방사선 양)은 0.3밀리시버트(mSv·방사선 피폭량 또는 방사선 양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로 일반인 연간 선량 한도인 1밀리시버트의 30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설계누설률 ‘0.5퍼센트/일’은 하루에 전체 원자로 내 기체의 0.5퍼센트가 빠져나오는 상태로, 기체누출 속도가 이 비율의 30배에 이르는 것은 결국 격납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최악의 상황을 말한다.

최악의 상황 가정한 시뮬레이션서 입증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이번 시뮬레이션에 대해 “항간에 ‘우리나라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었다’, ‘많은 방사선 오염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술

적으로 하지 않는 일이기는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우리나라 방사선 영향을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일본 지진 이후 환경방사능 감시를 위해 감시주기를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일본 지진 이후 우리나라의 방사선 준위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5일 울릉도 측정소의 방사선 준위가 세 차례에 걸쳐 미량 증가한 것은 강우의 영향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상청도 최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유출됐을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결론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요오드와 스트론튬, 세슘 등 방사성물질이 기류를 타고 한국까지 날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 15일 서울 거리엔 북서풍이 불었다. 일본에서 방사성물질이 날아오더라도 이 바람에 막혀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만약 풍향이 바뀌어 일본에서 우리 쪽으로 바람이 분다면 어떻게 될까.

기압골이 만드는 땅 위의 바람은 고도가 지상 수백 미터 정도여서 이를 타고 1천킬로미터 이상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일본 동해안에서 서쪽으로 날아가다가 일본 내륙의 산맥 등 지형적인 장벽에 부딪혀 멀리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1천킬로미터 이상을 날아가려면 결국 지상 수 킬로미터 이상에서 부는 강풍을 타야 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상공에는 북반구의 편서풍대가 지나가고 있다. 땅에서 2킬로미터만 올라가면 1년 내내 서쪽에서 동쪽으로만 바람이 불어 아예 한국으로 날아올 수 없다.

땅위 바람으론 1천킬로미터 이상 장거리 이동 못해

후쿠시마의 방사성물질들이 화산재처럼 하늘로 치솟아 10킬로미터 상공의 제트기류에 올라탄다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도 있다.

체르노빌 때도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하늘로 치솟은 엄청난 양의 방사성 연기가 제트기류를 타고 퍼져 나갔다. 하지만 국립기상연구소 김승범 박사는 "체르노빌 사고 때는 원자로가 불타면서 화산재처럼 방사성 재가 하늘로 치솟았지만 후쿠시마는 방사성 기체여서 그렇게 높이 올라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설령 어렵게 제트기류에 올라탄다고 해도 지구를 한 바퀴 도는 2주간 방사능이 약해져 별다른 위협이 못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양대 원자핵공학과 이재기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만약 대량의 방사성물질 유출이 일어난다면 일본 내륙 토양과 연안 바다에

조선DB

3월 14일 위성에서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연기가 나는 것이 폭발한 3호기다.

선 방사선 오염 우려가 있다"며 "일본의 특정 지역 농수산물이나 육류와 유제품 등을 먹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유럽 각국과 일본은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유입을 우려해 소련산 농산물과 유제품 수입을 금지했다. 특히 우유가 문제였다. 방사선에 오염된 풀을 먹은 젖소가 곧바로 오염된 우유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를 먹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은 갑상선암을 포함한 갑상선 질환으로 고통받았다. 이 때문에 일본 원전사고 이후 우리 정부도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선 오염 검역을 강화했다. G

글 · 서일호 기자

용어 설명

낙진(落塵) 일반적으로는 '땅에 떨어지는 가루'를 말하지만 원자력 분야에서는 '방사성물질이 붙은 상태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가루'를 말한다. 예컨대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방사선에 오염된 상태로 1천킬로미터를 날아가 땅에 떨어진 흑연가루를 낙진이라고 불렀다.

피폭(被曝) 방사선을 맞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가 강한 전자기파의 일종인 방사선을 너무 많이 맞으면 암이나 백혈병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다. 방사선이 우리 몸의 세포나 DNA를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현행 원자력법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 피폭 허용 한도를 1밀리시버트(mSv), 원전 관계자의 경우 연간 50밀리시버트로 정하고 있다.

시버트(Sv) 방사선 피폭량 또는 방사선 양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 1시버트(Sv)는 1천밀리시버트(mSv)다. 보통 일반인이 병원에서 X선 촬영을 하면 약 0.03~0.05밀리시버트(흉부 X선은 약 0.1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을 쐬게 된다. 지난 3월 1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는 방사선 수치가 폭발이 있기 전의 수천 배인 시간당 4백밀리시버트까지 치솟기도 했다.

반감기(半減期) 우라늄 같은 방사성물질의 원자 수가 방사성 붕괴라는 작용에 의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말한다. 방사성물질의 독성이 줄어드는 기간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신고리원전 1호기 모습. 신고리 1호기는 지난 2월 28일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한국 원전은 대지진에 안전한가?

규모 7.0 이상 내진설계로 안전성 높여

국내에서 가동 중에 있거나 건설 중에 있는 원전시설은 부지선정·설계·시공·운영 등 각 단계별 대응책이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는 점, 공학적 기술적인 근거 및 충분한 검증 등으로 보아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가 이뤄진다면 내구연한 동안 그 안전성에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규모 9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번 지진은 대지진이라 칭하는 규모 8.5 이상의 지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10미터가 넘는 지진해일을 유발함으로써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에서 연료봉이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나 방사성물질의 유출에 따른 인명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의 가능성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전 관련 시설물은 대형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그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다. 특히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와 같이 초기 사고의 형태와 원인, 대처방안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막연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심리를 지배하게 되고,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우선 전반적인 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지진, 지진해일, 태풍, 적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각종 건축물, 공작물, 시설물 등은 얼마나 안전할 수 있을까? 원론적인 답이겠지만 이러한 자연재해 관련 하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국내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공공시설과 중요 시설물 건설 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발생 가능한 가장 강한 자연재해를 기준으로 설계 초기부터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다.

특히 중요도가 높은 원전시설과 같은 특수한 구조물은 피해 발생 가능 상황을 모두 가정하여 설계 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본 원전 사고에서와 같이 지진해일에 의한 보조 발전 설비 시스템의 이상, 냉각 시스템으로의 전원공급 단절,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소가스의 이상분포 등 예상된 시나리오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피해 발생에 따라 한국 원전시설에 대해서도 대지진 발생 시 그 안전성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에 있거나 건설 중에 있는 원전시설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 미국 서부지역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지진 발생 확률이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발생 가능한 가장 강한 자연재해 기준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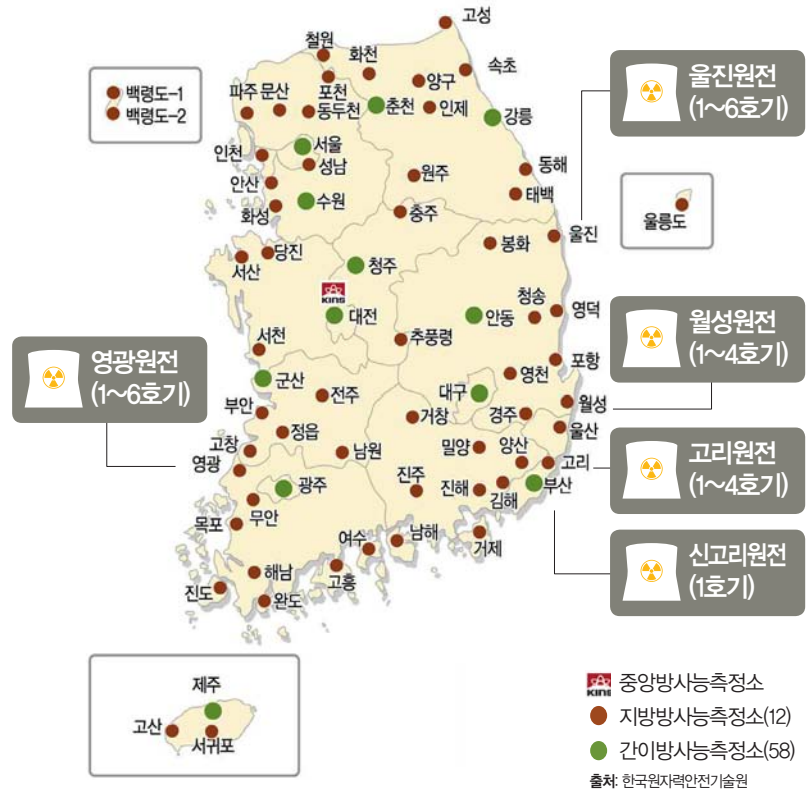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자력법과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특별히 설계하고 완벽하게 건설되고 있다.

우선 원전시설은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가능한 한 지진,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가장 적은 지역에 설치되고 있다. 즉 국내 모든 원전시설은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광역 및 인접지역의 지질특성을 정밀하게 조사, 파악한 결과를 통한 비활성 단층 지역에 건설돼 지진에 격리돼 있는 것이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는 발생 가능한 최대지진, 지반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원전 구조물이 1.2미터 이상의 두께를 가진 철근 콘크리트 벽체에 의해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원자로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원전 시설물을 구성하는 콘크리트 벽체들은 외부에서의 충격에 의한 피해에도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 및 신월성 발전소는 이러한 외부의 충격 확률 감소를 위해 주탑의 높이가 낮게 설계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 정책회의에 참석해 "추가로 건설하는 원전 모델은 규모 7.0 이상의 지진에 내구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벽체 두께는 15센티미터 확대시켜 내진 성능과 내폭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건설 단계에서는 내진구조물과 지진감시 계통을 설치, 가동 중에는 자동 지진감시계통으로 지속 계측하여 필요시 경보를 발생하거나 가동을 정지시킨다.

또한 국내 원전 시설물의 중심 시설인 원자로는 가압형 경수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냉각 설비에 중대 오류가 발생하여 오작동을 일으킬 경우 대류 현상을 이용, 원자로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번 원전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용하는 비등수 원자로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한국 환경방사능 감시망 및 원자력발전소 운영현황

출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일본과 달리 '대류 냉각' 가압형 경수로 사용

따라서 이번 일본 지진 및 지진해일을 교훈 삼아 산·학·연·관이 지혜를 모아 같이 고민해야 한다. 국내의 지진 현황과 향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한 방재 관련 기준의 재검증 및 재정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의 실질적 검토, 노후화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위해 원자로와 설비의 내구연한뿐만 아니라 원자로 격납 건물의 내구연한에 대한 성능 설계, 기준은 항상 최소한의 요구조건임을 상기해야 한다. 또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연구 및 개발 방향도 에너지원 다원화 측면에서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G

글 ·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상식으로 알아보는 '방사능 대처법 Q&A'

옥내대피 길어야 이틀… 식품비축 불필요

방사선 비상사태에서 나 자신을, 내 가족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기초지식과 행동요령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관심 대상은 원자력 사고나 테러로 인해 지역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임박한 경우로 한정했다.

만일 우리나라 원전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우리 동네로 향한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국내 원전 사고이므로 방사능도 무척 강할 것이다. 원전 사고가 아니더라도 흔히 거론되는 방사능 폭탄으로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

방사선을 피폭하면 곧 암에 걸리는가?

아니다. 돌연변이 세포가 암세포로 진전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고형암은 적어도 5년, 보통 10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폐암은 20년 이상 걸린다. 비교적 빨리 발현하는 암은 혈액암인 백혈병인데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빠른 아동에게서 약 2년으로 본다.

방사선을 피폭할 때 느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방사선은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피폭할 때 아무런 느낌도 없다. 따라서 방사선 피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해야 한다.

방사선으로부터 방호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소위 거리, 시간, 차폐의 3원칙이 있다. 방사성물질로부터 거리는 멀리, 노출시간은 짧게, 그리고 필요한 차폐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체내로 들어가는 방사성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호흡기 보호용구를 사용하고 오염된 음식물 섭취를 피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로 가야 하나?

만약 대피 권고나 명령이 발령되면 학교, 병원 등 다중시설은 따로 대피계획에 따라 학생이나 환자를 대피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혼잡한 상황에서 학교로 가더라도 자녀를 만나기 어려울 수 있고 교통체증 등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뉴시스

지난 3월17일 오후 일본 후쿠시마현 센다이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탑승했던 한 일본인 승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방사선 오염 감시기를 통과하던 중 방사선 수치가 검출돼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가족을 찾거나 소식을 듣는 것은 대피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옥내대피 권고 상황에서도 사정은 같다. 옥내대피는 비교적 단기간 옥내에 머무르면 방사능 구름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는 것이므로 방송 안내에 따라 기다리면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식품을 비축해야 하나?

옥내대피는 길어야 2일 정도이다. 이 정도 기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품은 대개 가정에 있을 것이다. 만약 대피가 이루어지면 음식은 대피소에서 공급된다.

장독대를 덮어야 하나?

이런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을 필요는 없다. 간장이란 소비량이 적은 식품이어서 설령 방사성물질이 약간 들어가더라도 호흡이나 다른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양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덮는 것이 낫다.

비가 오면 맞지 말아야 하며 우산을 써야 하나?

비 오면 우산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빗물이 방사능 구름을 통과하면 방사성물질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연적 침적보다 방사능 농도가 증가하지만 해당 상공에 방사능 농도가 얼마나 높은가가 요점이다.

끓여 먹으면 안전한가?

방사성 물질은 끓인다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잘 씻으면 그만큼 오염된 방사성물질이 제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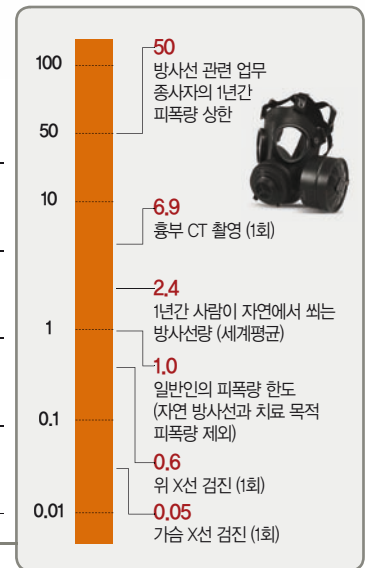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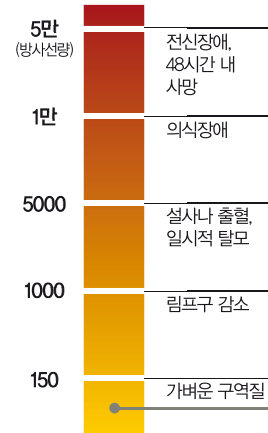
옥내대피 중에는 절대 밖에 나가서는 안 되나?

절대는 아니다.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잠깐 외출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

갑상선보호제란 무엇인가?

원전 사고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중요 성분의 하나가 방사성옥소인데 이것에 심하게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면 갑상선이 많은 피폭을 받게 되어 염증이나 장기적으로 갑상선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한 위협이 임박한 때 갑상선보호제(일반 옥소제제)를 투여하면 당분간 방사성옥소를 흡입하더라도 체내 흡수가 제한되어 피폭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갑상선보호제 복용은 실제로 심각한 방사성옥소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방사성옥소가 아니거나 그 노출정도가 높지 않을 때는 방호효과보다 부작용 우려가 더 크다.

방사선방호복이 있는가?

없다. 통상 방호복이라 부르는 것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자신의 평상복을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갈아입는 작업복에 불과하다.

방사능 흡입을 줄이는 방법은?

일반 먼지나 가스 흡입을 줄이는 방법과 동일하다. 방독면을 착용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흔하지 않고 마스크는 황사와 같이 큰 먼지들만 걸러준다. 원전에서 방출되는 가스나 방사성옥소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미하다.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먹어서는 안 되나?

오염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통제하므로 공식적 유통체계를 통해서는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역이 오염되었다면 개인적으로 재배한 야채는 취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야생 딸기류, 버섯류는 방사성물질을 농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부가 조사하여 지침을 내릴 때까지 독자적 취식은 삼가는 것이 좋다.

방사선 오염은 어떻게 제염하나?

제염할 대상에 따라 다르다. 의복은 세탁하면 오염이 줄지만 심하게 오염된 의복은 비닐백에 넣어 추후 정부가 수거하기를 기다린다. 피부 오염은 보통처럼 미지근한 물과 비누로 씻는 방법을 쓴다. 과민하여 지나치게 긁으면 피부가 손상되고 이를 통해 오염이 침투할 우려가 커진다. 제염 후에 남은 낮은 오염은 그냥 두면 1달 정도면 떨어져 나간다.

가축은 어떻게 하나?

가축도 가능하면 축사에 가둔다. 방목하는 젖소라면 오염되지 않은 건초로 대체함으로써 오염 우유 생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G

글 · 이재기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비교적 침착하게 대응하던 일본인들

지진은 잘 참았는데… 방사능엔 흔들리나

지난 3월 11일 동북부 대지진과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일본인들은 비교적 침착했다. 재난이 장기화되고 방사성물질 공포까지 겹치자 조금씩 평상심을 잃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여겨지고 있다.

일본인들은 초유의 대지진과 지진해일에도 침착과 배려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방사성물질 누출사태가 확산된다는 소식에 일본인들이 지난 3월 15, 16일을 기점으로 평상심을 잃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피난지역으로 설정한 범위 밖의 센다이(仙臺) 시 등에서도 탈출 러시가 이뤄지고 도쿄 등에선 일부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작 구호물자가 절실한 피난지역엔 먹을 것이 부족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한 일본정부도 긴박해졌다. 지난 3월 16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긴급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긴급지시를 내렸다.

“먹을 것과 물, 연료가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빗발친다. 자위대가 나서라. 물품배급을 자위대로 통일하라. 총력을 기울여라.” 곧바로 미야기(宮城) 현 소재 마쓰시마(松島) 기지에 눈이 내리는 악천후를 뚫고 비상구호품을 가득 실은 대형 수송기가 착륙했다. 자위대 수송헬기는 물론이고 미군 수송기 C130까지 동원됐다. 군용트럭들은 해안마을 쪽으로 즉시 출발했다.

연합

일본 도호쿠 지방에 규모 9의 강진이 발생한 지 엿새째인 3월 17일 미야기현 다가조시 상하수도부에 식수를 구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있다.

식량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3월 11일 이후 동북부 지역의 생산공장이 거의 가동을 멈췄기 때문이다. 반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대지진과 지진해일에 이어 원전공포까지 겹치면서 상당수 사람이 식료품과 연료를 비롯한 비상물품 비축에 나섰다. 정부와 언론이 방사성물질 누출과 여진에 대비해 "가급적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집이나 사무실에 머물라"고 당부하자 국민의 불안심리가 발동한 것이다.

방사성물질이 지난 3월 15일 도쿄까지 날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3천만명이 사는 수도권에서도 마스크와 방사성물질 해독제로 알려진 안정화요오드가 함유된 제품이 순식간에 팔려 나갔고 일부 지역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졌다.

곳곳의 도로가 붕괴돼 유통망이 무너진 것도 물품부족을 야기한 원인이다. 주요 고속도로의 상당수 구간이 통행금지됐고 해안지역 피난소로 이어지는 지방도로는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

군용기·트럭 동원해 비상구호품 배급나서

부두가 많이 망가져 해안 보급망도 거의 가동할 수 없다. 가솔린 부족사태 또한 물품공급을 불가능하게 했다. 피해지역의 대형 석유정제 시설 9곳 중 6곳이 가동을 멈춰 매일 1백만 배럴의 원유처리 능력이 상실됐다.

급기야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지난 3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진피해 지역으로 연료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재기를 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상도 "필요 이상의 식량을 비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를 식히기 위한 1차 작전은 실패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정부 대책본부는 지난 3월 17일 오전 자위대 헬기 4대를 동원해 원자로 3호기에 총 30톤의 바닷물을 뿌렸다. 3호기와 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보관 수조에 물 보충이 되지 않을 경우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사선량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NHK방송은 헬기 작전 이전 시간당 3.782밀리시버트(mSv)였던 방사능 측정치가 작전 이후 시간당 3.754밀리시버트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20여 대의 경찰청 물대포와 자위대 소방차를 투입해 원전 3, 4호기에 물을 쏘았지만 성과는 없었다. 도쿄전력은 냉각수 살포 이전 시간당 3.74밀리시버트였던 원전 관리동의 방사능 측정치가 작업 이후 오히려 4밀리시버트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G

글·윤종구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1백81명의 최후 결사대

원전복구 마지막 희망… "죽을 각오가 돼 있다"

방사선이 가득 찬 원전에 투입된 최후의 결사대가 지난 3월 17일 50명에서 1백81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전 상황으로 볼 때 이들은 방사선 피폭으로 생명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다. '이름 없는 영웅'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들의 각오는 단호하다. 이들 중 한 명이 친구인 미국 조지아대 교수에게 보낸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는 편지는 이들의 결의를 느끼게 해준다.

또한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 모집에 원전 근무 경험자 20명도 자원했다. 결사대 인원을 늘린 것은 원전 복구를 위한 마지막 총공세다. 일본 후생성은 결사대 인원을 늘리기 위해 원전 작업자의 연간 방사선 피폭 허용량을 1백밀리시버트에서 2백50밀리시버트로 긴급히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5일 철수했던 원전 근로자 중 피폭 허용량이 남은 원전 근로자들이 결사대에 스스로 나선 것이다.

일본 혼슈(本州) 남단의 시마네(島根) 현 소재 전력회사에서 정년을 6개월 남긴 59세 남성이 지난 3월 15일 6백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현장으로 달려갔다.

모든 사람이 필사적으로 원전사고 지역에서 탈출하는 순간 그는 '사지(死地)'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18세부터 41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해 와 올 9월 정년퇴직을 눈앞에 둔 그를 방사성물질 누출현장으로 내달리게 한 것은 평생의 경험을 원전사고 수습으로 불태우겠다는 '장인 정신'이었다. 그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미래가 좌우된다. 사명감을 갖고 가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그의 아내는 "평생을 원전 안전에 몸 바친 당신을 믿는다. 사고지역 주민들에게 안전과 안심을 선물하고 돌아오라"며 남편을 배웅했다. 아버지의 결심을 전해 들은 딸은 "처음엔 말렸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직업정신을 존중한다"며 눈물을 삼켰다.

이날 인터넷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지지통신이 관련 기사를 보도하자 감동한 수많은 시민은 그의 가족에게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선 "눈물이 난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거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제발 잠재워 주세요"라는 존경과 응원 메시지가 넘쳐났다.

대지진과 지진해일, 방사성물질 누출이 한꺼번에 닥친 최악의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소임을 마치려는 '보통사람'들의 철저한 직업정신이 빛을 발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북쪽으로 40킬로미터 떨어진 소마(相馬) 시에선 동네 반장 수십 명이 자발적으로 뭉쳤다.

이들은 눈에 띄는 조끼를 입고 주민의 안부확인과 식료품 배급, 의약품 조달, 피난지시 등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지진해일에 아들을 잃은 사람도 있고 자신의 집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누비는 이유를 이들은 한마디로 말한다. "반장이니까."

일본은 판경계 지진국·중국은 판내부 지진국

“한반도는 두 지역에 낀 완충지대”

큰 지진 에너지는 일본과 중국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한반도는 두 개의 충돌지역에 끼여 있는 완충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웃 일본이나 중국처럼 치명적인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다.

일본 북동부 근해에서 일본지진 역사상 가장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역 일대는 초토화됐다. 엄청난 재앙을 보며 이웃인 우리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를 생각해 본다.

이 지진은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46분에 발생,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관측됐다. 지구물리학적으로 북미판(North American Plate)과 태평양판(Pacific Plate)의 충돌에 의한 역단층의 해저지진이었다.

때문에 대형 지진해일을 발생시켜 해안선 4백 킬로미터를 따라 더 큰 피해를 초래했다. 이 지역은 지체구조력으로 여러 개의 판들이 서로 만나며 충돌하는 복잡한 지역에 속한다.

일본은 판경계에 위치한 지진국이고 중국은 판내부에 위치한 지진국이다. 한반도는 일본열도와 중국대륙 사이에 있다. 대부분의 대지진은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경계인 일본열도에서 발생한다. 북진하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에 의한 지진은 대부분 중국대륙과 몽골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큰 지진 에너지는 일본과 중국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한반도는 두 개의 충돌지역에 끼여 있는 완충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는 이웃 일본이나 중국처럼 치명적인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복 받은 나라다.

요즈음 백두산 화산의 폭발이 임박한 것처럼 소문이 떠돌고 있고 화산폭발에 관한 다양한 연구사업이 기상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백두산을 휴화산이라고 정의했고 중국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조선DB

대지진 여파로 일본에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3월 15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서면역에서 열린 민방위의날 훈련에 참가한 육군 53사단 화학지원대와 부산시 공무원 등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독면 착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백두산 화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의 화산이 아니다. 백두산 화산은 하와이의 열점(hot spot)이나 일본열도의 섭입대화산의 종류가 아니다. 일단 침강한(4백 킬로미터) 슬랩(slab·비교적 낮은 온도의 암석덩어리)에서 솟아오른 연약권(Asthenosphere)의 용승(upwelling) 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재발 가능성이 희박하다. 심각하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일본은 판경계에 위치한 지진국이고 중국은 판내부에 위치한 지진국이다. 한반도는 두 개의 충돌지역에 끼여 있는 완충지대라고 볼 수 있다.

동해안 원전 안전여부 재조사 필요

일본 동북부의 지진피해가 컸던 이유는 지진규모 자체가 큰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지형학적 특성과 그것을 모르고 해안선을 따라 들어선 원전시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지진해일의 생성과 운동 메커니즘은 지진운동과 해저 및 해안선 지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구물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위험지대를 피해서 원전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한반도에서도 특히 동해의 원전시설이 지진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를 재조사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지진과 화산의 공포는 우리가 무지한 데서 온다. 더욱이 우리는 지진과 화산에 대한 기초연구의 불모지다.

지진 강대국 일본도 지진 대재앙 앞에서는 맥 못 추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현재 독립적인 지진 전문 연구기관이 없고 얼마 안되는 전문가들이 모두 다른 기관에 얽혀 있다. 예컨대 기상청에서 전국 지진관측망과 지진연구 및 개발(R&D) 사업을 하고 소방방재청에서는 지진방재 정책을 집행하고,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지진 및 지진공학 연구를 진행한다.

그 밖에 안전기술연구원, 전력연구원 등에서도 원전 지진관측망을 운영한다. 이렇게 여러 기관에 전문인력이 흩어져서 소속기관에 속하는 주요 업무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지진 본연에 대한 기초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지진에 관한 기초연구 없이 지진 조기경보니 내진설계니 하고 시나리오 연구를 현재 집행하는 것은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의 가르침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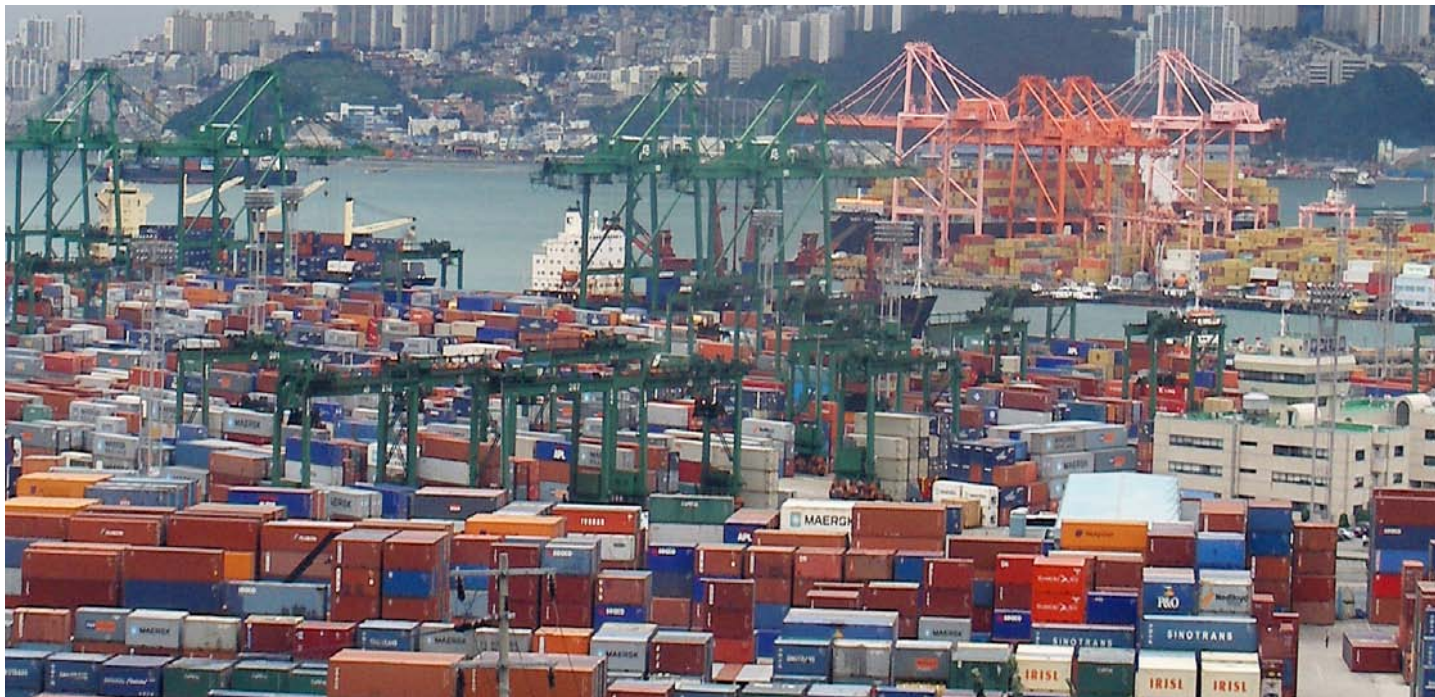
하루속히 지진 전문가들이 집결해서 지식, 자료, 정보 및 장비를 공유하고 중복되는 예산과 시간을 줄여야 한다. 이들이 모여 선의의 경쟁을 벌임으로써 효율적인 연구효과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독자적인 전문 연구원이 탄생하길 바란다. 더욱이 지진학은 핵실험 탐지라는 주요한 국방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각(지질)구조, 활성단층조사, 주요 시설물을 위한 부지선정(방폐장), 석유 및 가스탐사 등 자원탐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지진연구원 설립은 시대적 요청

지진학의 본래의 목적은 ①지진의 원인과 특성을 규명하는 지진원 메커니즘(source mechanism)을 분석하고 ②지진파의 전파에 의한 지질(지각)구조 연구 ③지진위험 방재를 위한 지진예측·예보 및 저감기술(조기경보 및 내진방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서 ①과 ② 같은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③의 연구를 할 수 있다. 기초연구 없이 내진설계나 조기경보를 운운하는 것은 방법을 모르고 싸우는 것과 같다. 또한 지진학은 물리학에 기초한 수학, 천체(우주), 지질학, 지리(지형), 화학, 해양, 토목공학 및 전자공학(전산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학의 발전은 곧 다른 분야의 개발을 초래하므로 다른 산업분야 개척에도 획기적인 역할을 한다.

국가지진연구원의 설립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1974년도에 국가지진국 산하에 지진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경제수준이 북한보다 월등한 대한민국에는 국가 지진 전문기관이 없다.

우리도 국가지진연구원이 신속히 만들어져 항간에 떠도는 지진과 화산의 공포 소문에 대해서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식의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G

글 ·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 소장)

지난 3월 14일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의 모습. 대지진으로 인한 센다이항 등의 폐쇄로 일본 동북부 항만의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중소형 해운사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국내 산업·경제 이상 없나

농림수산물 등 서민물가 동향 예의주시

일본 대지진에 이은 원전사고까지 겹치면서 일본 경제뿐 아니라 향후 우리 경제도 어느 정도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달리 방사성물질 누출이라는 변수가 생겨,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현황파악 결과 피해지역인 일본 동북지역과의 교역규모가 작고 자동차나 반도체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간 내 수급차질에 따른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연재해는 금융시스템의 우려를 키우는 요소는 아닌 만큼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원전사태'까지 겹쳐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변수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에 일본 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14일 경제분야 합동대책반을 구성했다. 금융, 원자재, 무역·산업, 물류·수송, 원전, 관광 등 분야별로 일일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앞서 11일엔 경제부처별 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12일엔 경제금융 상황점검회의를, 13·16일엔 긴급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정부, 합동대책반 구성해 대응책 마련

지식경제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15일 '민관합동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부품소재 에너지 수급 점검회의'로 확대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 원전가동 중단이 길어지면 LNG와 석탄 등 화력발전 연료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가스공사와 발전 5사를 중심으로 비상수급TF(Task Force, 태스크포

3월 14일 주식시장이 일본 지진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코스피지수는 15.69 포인트 오른 1971.23으로 마감됐고 원·달러 환율은 5.50원 오른 1천1백29.70원에 마감됐다.

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긴급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대지진의 피해가 속속 밝혀지고 있고 원전 문제가 잇따르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18일엔 '물가안정대책회의'가 열렸다. 일본 지진사태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쌀, 배추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환율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곧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반적으로 농림수산물, 소비재 등에 대한 일본 수입비중이 각각 2.4퍼센트, 7.7퍼센트로 크지 않아 관련한 물가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전량 일본에서 수입되는 생태 등은 물량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필요시 대체 수요 품목인 냉동명태로의 수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유가 하락세도 국내 공급가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차관은 "국제유가가 국내 공급가에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1~2주가 걸린다"며 "3월 넷째 주 이후 국제유가 하락세가 국내 공급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동의 정국불안 속에 일본 재해복구가 장기화되면 국제유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했다.

임 차관은 "LNG의 경우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일본의 수입 수요 증가로 가격상승이 우려되나 중장기 계약을 통해 금년도 필요 물량의 98퍼센트 이상을 이미 확보해 당장 일본사태로 인한 수급불안, 가격인상 등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 변동성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G7회의에서 국제환율 안정에 합의하는 등 국제공조가 이뤄지고 있어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중동, 일본 대지진 리스크 등 돌발적 변수가 발생한 시기인 만큼 보다 세심한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도 비상대책반 가동

상황이 장기화되고 변수가 이어짐에 따라 각 기업체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경제단체도 비상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중소기업청은 14일부터 일본 대지진 관련 중소기업지원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11개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일본수출 중소기업의 피해상황과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선 대지진으로 금융압박을 받는 기업과 개인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부산은행은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천억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일본과 지리적 경제적 관련성이 높은 부산과 울산의 중소기업은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대일 수출입 기업의 피해상황 및 무역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 대지진 관련 무역 애로 신고센터'(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www.kita.net 배너 클릭)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무역협회 도쿄지부와 공동으로 일본 내 한국기업의 피해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정부와 공동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G 글·박근희 기자

일본 동북지방에 진도 9의 강진이 발생한지 엿새째인 16일 오전 한국에서 급파된 119구조단원들이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 인근의 다가조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힘내세요 일본"… "고마워요 한국"

정부 · 한류스타 · 기업 · 구호단체 앞다퉈 일본 돕기 나서

일본 대지진 · 방사성물질 유출과 관련한 안타까운 속보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대지진 관련 구호와 지원 소식도 속속 들려온다. 사상 최악의 지진인 만큼 지원 규모도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를 비롯해 한류스타, 기업, 구호단체도 팔을 걷어붙였다.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일본 동북부 지방으로 전 세계 구호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독도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던 우리나라도,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마찰을 빚던 중국도, 세계 최빈국인 아프가니스탄도 자연의 대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구호를 지원하거나 성금을 보내는 등 뜻을 한데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지진 발생 소식을 접하자마자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적극 구호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긴급지원 요청에 따라 구호대와 구호견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본으로 파견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체계와 통일성을 갖추고 구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맞춤형 지원'이란 민관의 무분별한 지원을 통일해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본이 우리 정부에 요청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16일 오후 5시 '일본 지진 · 해일 피해지원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했다.

한류스타들도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부의 뜻을 선뜻 밝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시작은 원조 한류스타 배용준이다. 배용준은 지난 14일 자신

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대지진 참사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성금 10억원을 일본 총리가 직접 총괄하는 내각 산하 정부 기금에 전달했다. 같은 소속사 소속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도 뜻을 보탰다.

처음 배용준의 기부 소식을 전달받은 미조히타 히로시 일본 관광청 장관은 "한일 문화교류에 힘써 온 배용준씨의 피해복구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배용준을 시작으로 한류스타들 기부행렬 이어져

이병헌, 최지우, 송승헌, 원빈, 장근석, 안재욱, 장동건 등 한류스타들의 통큰 기부행렬 소식도 속속 이어졌다. 류시원은 기부와 함께 13일 자신의 일본 전국 콘서트 투어 장소 중 하나였던 센다이시 공연을 회상하며 "지진피해 복구에 직접 참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일본과 인연이 깊은 스포츠스타 박찬호와 박지성도 통큰 기부에 동참했다. 박찬호는 "재일교포 3세인 아내(박리혜씨)가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그런 모습을 보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의연금을 내게 됐다"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

한류 배우부터 시작한 기부행렬은 신한류인 가요계로 퍼져 나갔다. 남성그룹 JYJ(재중, 유천, 준수)를 비롯해 신한류 양성의 대표 엔터테인먼트사인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도 기부를 통한 일본 돕기에 나섰다. 18일 현재까지 스타들의 누적 기부액만 50억원을 돌파했다.

한류스타들의 잇따른 기부 소식에 일본 네티즌은 "아리가또(고맙습니다)"로 화답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 후지TV, 산케이스포츠 등 일본 주요 언론도 한류스타들의 기부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밖에 프랑스 통신사 AF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세계적인 언론도 한류스타들의 기부행렬에 대해 비중 있게 전했다. 기부 분위기는 팬들도 움직이게 했다. 일부 한류스타들의 공식 팬클럽에서는 일본 대지진 긴급 구호성금 모금을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직접 성금 모금 현장에 동참하는 스타들도 있다. 김정훈, 션, 나르샤 등은 18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일본 대지진 피해복구 기금 마련을 위한 구세군 모금 현장에 동참해 시민의 기부를 독려했다.

김창완, 남진, 설운도, 장윤정, 박현빈 등도 일본 지진 피해 돕기 공연 수익금을 전액 기부했다. 팝페라 테너 임형주는 오는 30일 자선콘서트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다. 카라도 일본에서 낼 세번째 싱글 '제트 코스터 러브'의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계획이다.

기업이나 단체, 지자체의 지원 소식도 이어진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14일 OZ156 항공편을 통해 기내 담요 1천5백 장과 컵라면, 생수 등 구호물품을 후쿠시마 지점에 전달했다. 홈플러스 등은 내달 13일까지 전국 1백22개 매장과 본사 임직원 전용식당에서 성금모금 운동을 펼친다.

한류스타 배용준을 시작으로 일본 대지진 참사에 대한 스타들의 기부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과 인연이 깊은 박찬호는 진심 어린 기부의 뜻을 전달해 일본 팬들을 울렸다.

양국 적십자사가 실질적인 창구

삼성은 "성금 전달과 함께 삼성의료원 봉사단으로 구성된 '삼성 3119 구조단'을 일본정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피해지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도 계열사별로 일본 협력사 봉사활동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모금 최종 취합 및 전달은 대한적십자사가 담당하고 있다. 기관이나 단체가 모금한 성금을 행정안전부가 취합해 외교부로 전달하면 외교부는 이를 일본적십자사로 보낸다.

기업들의 모금액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우선 취합하고 이를 대한적십자사가 최종 취합해 일본적십자사로 보내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모금 취합의 실질적인 창구역할을 하는 대한적십자사는 "14일부터 16일까지 59억여 원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홍보실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모금을 진행하는 단체가 많아 향후 어느 정도의 성금이 전달될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알 것 같다"면서 "일본 측이 양국 적십자사를 통해 물자와 성금을 전달하기를 희망한 만큼, 지원단체들이 되도록 일본 측의 뜻에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G

글·박근희 기자

기 획 특 집

46용사여!
당신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772함 수병은 귀환(歸還)하라…
온 국민의 애타는 목소리를 들으셨겠지요.
그대들을 구하기 위해 얼음 같은 탁류 속으로 아낌없이 몸을 던진
한주호 준위도 지금 그대들과 나란히 웃고 있겠지요.
적의 기습과 맞닥뜨린 그대들의 귀환이 서해의 급류에 밀려 다소 늦어졌지만
가족은 온 가슴으로 그대들을 안았고 국민은 온 마음으로 그대들을 품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잠시 잠들었던 그대들이 따뜻한 꽃 속에서 영면한 지 1년.
해군 초계함 772 천안함 수병들, 그대들의 임무는 종료됐지만
조국수호의 신성함을 일깨워준 그대들은
조국의 산하를 지키는 푸른 영령들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조선DB

지키지 못하면 평화도 없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우리 사회의 평화에 대한 사고를 극적으로 바꿔놓았다. 우리 군의 역할이 국토방위에서 테러진압까지 활발해진 가운데 지난 1월 22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 인근 서해상에서 대테러 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남은 자의 소명은 국방개혁

싸우면 이기는 강한 대한민국 군대로

백령도 인근 서해상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46명의 귀한 장병이 목숨을 잃은 천안함 피격 사건은 느슨해진 국가안보의식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국민은 싸울 능력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는 교훈을 간직하며 46용사를 가슴에 묻었고, 우리 군은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다.

마치 거대한 태극기가 휘감은 듯한 붉은색과 푸른색, 흰색으로 채색된 천장이 내려다보는 서울 용산구 남영동 전쟁기념관 2층 호국추모실 앞 원형홀.

지난 3월 17일 찾은 원형홀의 호국추모실 입구 벽에 서 있는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곁에 놓인 흰색 조화바구니가 천안함 피격 사건 1주기가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 곁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전시물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난해 3월 26일 밤 9시22분 폭음과 함께 침몰한 천안함의 함미·함수 인양 과정을 보여주는 대형사진들, 또 북한제 어뢰의 수중폭발로 천안함이 두 동강 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해역에서 수거된 북한제 어뢰 CHT-02D의 추진체 모형 등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폭발원점에서 쌍끌이 어선이 건져올린 '결정적 증거'인 북한제 어뢰추진체는 지난해 연말까지 실물이 전시돼 있었으나 부식 진행이 우려돼 올 들어 모형으로 대체되었다.

전쟁기념관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들도 천안함 피격 사건 전시물 앞에서 연방 카메라를 눌러댔다. 일단의 일본인 대학생들이 어뢰추진체 앞에 모여 전쟁기념관의 영어·일본어 안보해설사 문태일(63)씨의 일본어 설명에 귀기울였다.

공군 장교 출신이라는 문씨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다 보니 미국, 호주, 일본 등 우방국가 관람객들이 그에 대해 많이 물어 온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평화는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쟁취한 것이란 교훈을 주고 있다"며 "고귀한 희생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천안함 46용사와 구조작업 중 순직한 해군 특수전(UDT) 요원 한주호 준위까지 당신들을 잊지 않겠노라던 국민의 다짐은 천안함 사이버추모관(www.navy.mil.kr/memorial772)에서 아직도 울리고 있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에서 추모글 쓰기가 다시 등장하고 대학생 추모카페가 개설됐다.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에 전시된 천안함과 46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묘역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는 발길도 늘고 있다.

네이버 등 포털에 대학생 추모카페

하지만 이러한 추모의 열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더불어 강군을 위한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5월 국가안보태세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발족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선진강군을 위한 국방개혁'의 71개 과제를 이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12월 말 발간된 〈2010 국방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명기됐다.

지난 3월 7일 발표한 '국방개혁 307 계획'은 일련의 국방개혁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당면한 안보위협과 미래의 전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군대 육성을 위한 방안인 '국방개혁 307 계획'은 '다기능·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국방부는 73개의 과제를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구분해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열린 2010년 신임장교 합동임관식에서도 강조했던 '합동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합참·각군본부의 권한과 기능을 재조정한다. 각 군의 교육과 전투발전, 군수지원을 국군교육사령부와 국군군수사령부로 통합한다. 또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하고 3군 사관학교 1학년 생도의 교육과정을 통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방개혁 307 계획'은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사이버 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최근 군에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선 조치 후 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북한이 군사공격을 하면 한국군이 반드시 즉각 응징 공격할 것이며, 북한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효과를 갖는다"며 "더불어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해 한국은 경계태세 강화라는 수동적·방어적 전략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세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동성 강화' 위한 권한 · 기능 재조정

최근 강도 9.0의 대지진과 뒤따른 지진해일, 그리고 원전 폭발로 방사능 공포에 휩싸인 일본을 향해 우리 국민은 따뜻한 위로를 보내고 있다. 우리와 불편한 과거사를 가진 일본에 대해 위로의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이 천안함 피격 사건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한목소리로 위로와 추모를 했는지 자성하게 된다.

다국적 전문가와 공인된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객관적인 증거들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입증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꼬리를 문 의혹제기 때문이다. 천안함 피격 1주기다. 의혹을 털어버리고 진정한 위로와 추모에 한마음이 될 기회이기도 하다. G

글·박경아 기자

천안함 사이버추모관 (www.navy.mil.kr/memorial772)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일지

날짜	내용
3월 26일	오후 9시22분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 천안함 승조원 58명 구조, 46명 실종
3월 30일	해군 UDT 요원 한주호 준위, 천안함 실종자 수색 중 사망
3월 31일	국방부 합동조사단 편성
4월 2일	천안함 수색에 나선 98금양호 사고로 침몰
4월 7일	합동조사단 1차 발표, 천안함 생존병사들 증언 공개 "폭발음과 함께 몸이 공중에 떴다가 우현 쪽으로 떨어짐"
4월 12일	합동조사단을 민군 합동조사단으로 개명 외국조사단, 국회추천위원, 자문기관 등 합류 (외국조사단: 미국 15명, 호주 3명, 영국 2명, 스웨덴 4명)
4월 16일	민군합동조사단 조사활동 2차 발표 "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된 것으로 판단"
4월 23일	천안함에서 떨어져 나온 연돌 인양
4월 24일	천안함 함수 인양
4월 25일	민군합동조사단 조사활동 3차 발표 "내부폭발, 좌초, 충돌 등의 흔적이 없어 외부폭발로 판단, 폭발압력이 선저 아래에서 윗부분으로 작용"
5월 15일	쌍끌이 어선, '결정적 증거'인 어뢰추진체 수거 '결정적 증거', 북한제 어뢰 CHT-02D 설계도와 일치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종합발표 "천안함은 북한의 잠수정에서 발사한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
9월 13일	민군합동조사단 명의로 '천안함 피격사건 최종 보고서' 발표

국민들은 46용사를 가슴에 담았다

꽃샘추위에도 참배객 줄이어… "많게는 하루 수백 명씩 찾아와"

천안함 46용사의 묘비엔 2줄의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해에서 전사. 그리고 또 한 줄. 2010년 서해 NLL 사수작전 수행. 생(生)은 다르나 몰(歿)은 같은 묘비에 참배하는 이들의 가슴은 먹먹해진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오늘에도 많은 사람이 46용사의 묘역을 찾는다. 젊은 넋들의 뜻을 되새긴다.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이하 현충원)에 들어서자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추모 천안함 피격 1주기 천안함을 잊지 말자!'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걸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천안함 46용사와 실종 장병을 수색하던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가 안장돼 있는 현충원은 한적했다. 갑작스런 꽃샘추위 탓인지 인적조차 드물었다.

"잊히다니요." 권율정 국립대전현충원장이 말했다. "천안함 46용사를 참배하는 분들은 많게는 하루에도 수백 명에 이릅니다. 군부대나 학교 등에서 버스를 타고 단체로 오는 경우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찾는 일반시민들의 참배도 줄을 잇습니다. 요즘엔 천안함 1주기가 다가오면서 언론의 문의도 쇄도하고 있죠. 지금도 한 방송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46용사는 사병제3묘역의 한 곳에 조성된 '천안함46용사 묘역'에 안장돼 있다. 줄을 맞춰 서 있는 46기의 묘비에는 같은 묘비명이 새겨져 있다. '2010년 서해 NLL 사수작전 수행'과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해에서 전사'가 그것이다.

차가운 날씨 탓에 참배객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지레짐작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오후가 되면서 군부대 장병과 일반시민들의 참배가 줄을 이었다. 봉사활동을 왔다는 회사원들도 이곳을 찾았다.

생전에 용사들과 안면이 있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참배객들의 표정은 피붙이의 무덤을 찾은 듯 처연했다.

"내 자식의 일인 듯 애틋하죠"

자식 기르는 어머니들의 마음은 제 자식을 넘어 생면부지의 젊은 넋들에게도 닿아 있었다. 현충원 인근에 거주한다는 한 시민의 말이다.

"집이 가까워서 종종 찾아요. 내 자식은 아니지만 올 때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제 아이들과 나이도 비슷하고, 제 아이와 같은 학교를 다니던 용사도 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서울에서 왔다는 또 다른 참배객이 거들었다. "천안함이 피격됐다

천안함 46용사가 안장돼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는 군장병에서 학생,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의 참배객들이 일년 내내 줄을 잇는다.

육군 32사단은 천안함 46용사 참배를 신병 교육의 필수코스로 삼고 있다. 오른쪽은 고 한주호 준위의 묘비.

는 보도를 접했을 때의 놀란 가슴을 어떻게 잊겠어요. 당장 전쟁이 날 것 같이 불안했죠. 저는 그나마 아들들이 제대를 해서 괜찮았지 아들이 아직 복무 중인 부모들 마음은 어땠겠어요. 제 친구 아들이 당시 입대했는데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자꾸 생각나서 한 번 가야지 가야지 벼르다가 오늘에야 찾았네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스러진 46용사의 넋을 기리는 데는 종교의 경계도 없었다. 이날은 대전시 옥계동성당의 신자들이 단체로 참배를 왔다. 윤필수(대전시 거주)씨는 "봉안식을 치른 뒤 가끔 이곳을 찾는다"며 "벌써 1주기가 다가온다니 마음이 더 아파서 신도들을 모시고 왔다"고 말했다.

꽃샘추위는 바람을 동반했다. 변덕꾸러기처럼 방향을 바꿔 가며 바람이 묘역을 훑고 지나갔다. 거친 기세의 바람을 헤치고 일군의 참배객이 나타났다.

인근 32사단 장병들이었다.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들이었다. 천안함 용사 중에도 이등병 신분의 장병이 여럿 있었다. 이들을 인솔하고 온 H원사의 설명이다.

추모 사진전에 몰리는 참배행렬

"신병교육의 일환으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군생활이 아직 낯선 신병들이 참배를 통해 마음을 다잡고 군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를 위해 산화한 선배들의 헌신을 되새기며 소명의식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4시간 정도를 머무는데 신병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46용사 묘역 곁에는 '장교 제3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실종 장병을 수색하다가 숨을 거둔 한주호 준위가 이곳에 안장돼 있다. 그의 묏자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른 선열의 묘와는 얼른 봐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먼저 묘비를 받치고 있는 묘단의 생김이 다르다. 돌이 아니라 넓은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위엔 꽃다발들이 빼곡하게 놓여 있었다. 주변에서 묘역을 정비하고 있던 한 직원의 설명이다.

"원래는 다른 묘단과 똑같이 만들었죠. 지금도 저 합판을 걷어 내면 똑같은 묘단이 나옵니다. 합판 묘단은 워낙 참배객이 많아서 만들었어요. 꽃을 놓을 자리가 부족했거든요. 지금도 참배객이 많지만 안장 초기에는 하루에 천 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묘역 외에 최근에는 참배객들이 꼭 들르는 곳이 하나 더 생겼다. 정문에서 가까운 보훈미래관 2층 야외전시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안함 46용사 1주기 추모 특별 사진전시회'가 그것이다.

현충원은 천안함을 기억하는 행사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개최하고 있다. 천안함 용사들이 가진 남다른 의미 때문이다. 특히 유족에 대한 애정이 깊다. 지난해 11월 개최한 '보훈 사랑 현충원 길 걷기 대회'에 유족을 초청하고 연말에는 유족과 함께 송년회를 가지기도 했다.

홈페이지(www.dnc.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천안함의 의미를 알리고 있다. 3월 15일 현재 사진전과 함께 추모 글짓기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었다. 권 원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이 쉽게 망각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잊히지 않아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자유와 평화가 거저 얻어진 것으로 여기는 풍조에서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은 큰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G

글 · 변형주 기자 / 사진 · 한용환 기자

前 천안함 기관장 이채권 대위

"내 군인의 길엔 전우의 몫까지 더해졌다"

벌써 1년. 다시금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되씹는 이들이 있다. 58명의 천안함 생존장병들이다. 동료장병들의 전사에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던 이들은 "니들이라도 살아 돌아와 고맙다"던 전사장병 어머니의 위안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생존장병들은 전역을 하거나 새 임무를 맡아 먼저 간 동료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현재 해군 제2함대 초계함 안동함의 기관장으로 근무 중인 전 천안함 기관장 이채권 대위가 천안함 피격 사건 1주기를 맞아 그간의 소회를 담은 기고문을 보내 왔다.

다툼이 없는 세상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 왔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갖기 위해 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진 자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 일이었다. 때문에 먼 옛날 약탈자들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장을 한 이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무기를 드는 이들이 존재해 왔으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국군이 이 역할을 맡고 있다.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어언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 간
꽃다운 이 내 청춘 ⋯."

운동권에서 개사하여 부른다는 이유로 한때 금지곡으로 지정되기도 했던 김민기의 〈늙은 군인의 노래〉의 한 소절이다. 어린 시절, 늦은 밤 우연히 TV에서 들었던 노랫말은 오래도록 잊어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고, 고등학교를 마칠 무렵 선택의 갈림길에선 나의 이정표가 되어 결국 직업군인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노래의 가사에서처럼 고단하고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먼 훗날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물음에 당당히 답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더라도 스스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항상 반복되는 훈련과 업무들에 익숙해지면서부터 조금씩 느껴지는 갑갑함과 개인생활을 언제까지 희생해야 하는가 하는 피해의식들이 점점 숨을 조여 왔고, 처음 군인의 길을 걸으리라 결심하며 했던 다짐들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 갔다.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날이 왔다.

3월 26일. 잠시 거칠어졌던 바다가 잔잔해져 다시 경비임무를 위해 닻을 올렸다.

임무숙달과 팀워크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전투배치 훈련 등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지나고 끝내지 못한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책상에 앉아 워드작업을 하던 그 순간, "쾅광" 하는 굉음과 함께 주위가 온통 어둠에 덮였다.

온갖 의혹과 음모론에 두 달여 힘든 시기 보내

좁은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닥이 꺼져 몇 층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몸이 한없이 아래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느낌을 받은 뒤 순간 정신을 잃었다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부장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한구석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비상조명등 불빛에 의존해 방을 벗어났다.

해군

천안함 생존자인 이채권 대위가 기관장으로 복귀해 임무수행 중인 초계함 안동함.

조선DB

군인은 국민을 지킨다. 이 간단명료한 명제수행을 위해 경계임무 중이던 천안함 46용사는 산화했다. 58명의 생존병사들은 동료의 몫까지 다하며 살아갈 것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서, 게다가 함정이 우현으로 90도 가까이 기울어져서 출입문이 머리 위에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대원들은 생각보다 침착하게 행동했다.

지시에 따라 주변을 경계하고, 피복과 구급약품을 꺼내 오고, 자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동료가 있는지 함 내부를 탐색하고….

구조대가 도착해서 생존한 전원이 함을 이탈하는 순간까지 어느 한 사람도 군인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

오히려 어려움은 바다가 아닌 육지에 있었다.

시간이 흘러 조금씩 진상이 드러났지만 의혹제기는 끊이질 않았고,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온갖 추측과 비방이 난무했다.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가족들이 내뱉는 원망 섞인 말과 슬픔에 겨운 표정에 답답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당시 상황을 직접 겪은 나조차도 그런 의혹과 음모론을 들으면서 혹할 정도니 주변 사람들의 악의 없는 물음에는 더 이상 마음 상하지 않지만 되돌아보면 4월부터 6월까지가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다.

인양된 선체에서 유품들을 회수하고, 함정의 자산을 정리하고, 외부에 노출된 선체의 부식 등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 보니 어느새 2010년이 지나갔고 복잡하던 머릿속도 다소 정리가 되었다.

다음 근무지에 대한 의향을 물어 왔을 때 고민하다 내린 결론은 다시 함정근무를 하는 것, 그것도 되도록 동형 함정을 다시 타는 것이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당시의 기억들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잡기 위한 선택이자 다짐이었다.

왜 그리 군인에 집착하느냐 물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나로 존재하기 위한 선택이라 답한다면 우스운 이야기일까?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위해 다시 배를 탄다

소방관은 위험을 각오하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조하고,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늦은 밤에도 거리를 순찰한다. 그리고 군인은, 군인은 국민을 지킨다.

영하의 날씨에 손발이 부르터도, 언제 비상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부대에서 30분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도, 가족·친구·연인이 원할 때 함께 있어 주지 못해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외우는 '국군의 사명'처럼 군인의 존재 이유는 국민(내 가족에서 친척, 이웃으로 확대된 공동체)을 지키는 숭고한 것이고 이제 내게는 먼저 간 전우들의 몫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안동함에 오른다. G

2010년 4월 3일 오후 국립 대전현충원 장군 3묘역에서 열린 고 한주호 준위 안장식에 많은 추모객이 길게 줄지어 헌화하고 있다.

동상으로… 교과서로 부활한 '영원한 전설'

진정한 군인정신·살신성인의 표상으로 국민의 마음속에 새겨져

천안함 피격 1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46명의 희생 용사와 함께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바로 실종 용사들의 수색 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다. 그가 용사들과 함께 영면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의 군인정신과 살신성인 정신은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해 3월 30일은 해군 특수전여단(UDT/SEAL)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던 고 한주호 준위가 'UDT/SEAL의 영원한 전설'로 기록된 날이다.

한 준위는 그날 북한의 천안함 피격으로 실종된 용사들 구출 작업에 참여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수색 작업을 벌이던 한 준위는 잠수병 증세로 치료 중 순직했다.

당시 한 준위는 단 한 명의 장병이라도 더 구조하겠다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수심 25미터의 바다로 뛰어들었다. 높은 파도 등 악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던 그의 불굴의 의지는 결국 순직으로 이어져 많은 이를 안타깝게 했다. 그의 용기에 힘을 얻고 그의 길을 따르기로 결의한 후배들은 천안함 인양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

3월 30일 진해 해양공원에서 동상 제막식

그의 순직은 국군장병, 군 관계자들은 물론 온 국민이 진정한 군인정신과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추모 열기는 끊이질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순직한 한주호 준위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이번 학기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 도덕교과서 '생활의 길잡이'

조선DB

2단원 학습사례(책임을 다한 숭고한 삶)에도 수록됐다.

이런 가운데 오는 30일에는 진해 해양공원에서 한주호 준위 동상 제막식이 개최된다.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11시부터 시작하는 제막식은 한 준위 유가족을 비롯해 2백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한 준위 동상이 부대 내부가 아닌 진해 해양공원에 설치된 이유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장병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살신성인 정신의 귀감이 된 한 준위를 누구나 찾아와서 보고, 그 뜻을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주호 준위 동상은 그의 불굴의 군인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보트를 타고 작전지역으로 향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석탑 중앙 상단엔 LED 램프로 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굴의 불꽃'을 설치했다.

최고의 특수전요원에게 수여 '한주호賞' 마련

동상 제막식에선 '한주호상' 시상도 진행한다. 한주호상은 UDT와 해난구조대(SSU), 해병대 특수수색대 장병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 최고의 특수전 요원 2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첫 수상자로 김종훈 원사(UDT)와 박종훈 상사(해병대)가 선정됐다. 김종훈 원사는 훈련 중 중상에도 불굴의 투지로 회복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뤄낸 공적을, 박종훈 상사는 동계 설한지 훈련을 과학화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시상에 앞서 김종훈 원사는 "한주호 준위는 전우애가 무엇인지, 국가를 향한 충성심과 군인정신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한 준위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위국헌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천안함 1주기를 맞아 한 준위의 유가족은 "그동안 얘기돼 오던 교과서 수록, 동상 제막, 한주호상이 구체적으로 실현돼서 더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한 준위의 아들인 상기(26)씨는 "진해 해양공원 일대는 아버지가 교관 시절에 훈련을 했던 장소라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열린 공간에 있는 만큼 많은 국민이 동상을 통해 아버지의 정신을 기리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작년 중위 예편 후 현재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그는 올해부터 교과서에 수록된 아버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슬픔이 가시지 않은 듯 말을 아꼈다. 그는 "내 아버지의 이야기를 교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고 부담이 되지만, 아버지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싶다"고 덧붙였다. G 글·박근희 기자

故 한주호 준위 동상 비문

해군제공

여기 천안함 46용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친 살신성인의 영웅, 고 한주호 준위의 희생을 기리나니 그는 진정 해군 특수전 부대(UDT/SEAL)의 전설이며 군인의 영원한 표상이라.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난 한주호 준위는 18세에 해군 부사관을 지원해 강한 자긍심과 용맹심을 자랑하는 해군 특수전 요원이 되었다. 그 후 35년을 특수전부대에 근무하며 최고의 수중 파괴 전문가로서 각종 훈련과 임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15년 동안 2천여 명의 특수전요원을 양성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쓰나미 복구현장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해 청해부대 1진 요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던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북한에 의한 천안함의 피격 사건 소식을 접한 한 준위는 '아들 같은 장병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한다' 며 백령도로 달려갔다.

3월 30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세찬 물살만이 흐르는 극도의 위험한 작전환경에 맞선 한 준위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서해바다에 몸을 던졌다. 그의 나이 53세. 그렇게 그는 나라를 위해, 전우를 위해 말보다 행동으로 희생을 실천한 이 시대의 참군인이다.

그의 의로운 죽음은 절망감에 빠져 있던 천안함의 구조현장 분위기를 일순간에 바꾸었다. 그의 길을 기꺼이 따르기로 결의한 후배들에 의해 천안함 인양작전은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었다. 진정한 군인의 길과 희생정신의 표상이 된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은 이 누가 있으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은 온 국민이 함께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그의 고귀한 군인정신과 희생정신을 높이 기려 '충무무공훈장' 을 추서하였다.

우리는 잊지 않으리라! 그대의 성스러운 죽음을. 기억하리라! 그대의 고결한 정신을. '두려움은 두려움 그 자체에 있다' 는 사실을 몸소 실천했던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 한주호 준위여! 그대의 육신은 비록 현충원에 잠들어 있으나 전우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그 숭고한 전우애와 국가를 향한 투철한 충성심, 참군인으로서의 군인정신은 백령도 바다 깊이 서려 있으리.

우리 여기 그대의 동상을 세워 초개와 같이 살다간 그대의 영웅적 삶을 만대에 알리리니 그대는 우리 역사에 하나의 전설로 남아 영원히 영원히 빛나리로다.

2011년 3월 30일 해군참모총장

"또래 장병들의 희생 너무 안타까워"

음모론에 근거한 질문공세에 조목조목 설명하자 고개 끄덕

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를 맞아 대학생 단체들이 모임을 만들어 젊은 세대 사이에 추모열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하나씩 둘씩 인터넷상에서 뜻을 모은 이들은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 피격사건을 둘러싼 세간의 의혹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시의 적의 기습공격에 스러진 또래 젊은이들의 죽음을 기렸다.

웹진〈바이트〉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를 찾은 대학생들이 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를 기념해 3월 12일 천안함 희생장병들을 위해 준비한 흰색 조화 바구니.

"이곳이 천안함의 함미입니다. 많은 장병이 이곳에서 전사했습니다."

3월 12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있는 천안함 전시 현장. 앳된 얼굴의 대학생 50명가량이 진지한 표정으로 해군 제2함대 박재식 중령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총 길이 88미터에 이르는 천안함은 두 동강이 난 채 몸체 곳곳에 붉은 녹이 슨 모습이 1년 전과 별다를 게 없어 보였다. 더 이상 녹이 슬지 않도록 비를 가리는 덮개를 씌웠을 뿐 전선이며 각종 철재구조물이 노출된 채 두 동강 난 모습은 마치 몸이 잘린 거대한 짐승의 몸체 같았다. 거대한 철골 진열대 위에 놓인 천안함 아래쪽에 서니 서늘한 바람이 함수와 함미를 가른 절단면 사이로 스며들었다. 대학생들이 준비해 온 백색 국화 바구니가 한쪽에 놓였다.

이들은 '천안함피격1주기추모위원회'가 마련한 천안함 견학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다. '천안함피격1주기추모위원회'는 'New또다시' '미래를여는청년포럼' '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등 7개 대학생단체가 천안함 피격 1주기를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결성한 모임.

"직접 보고 판단을" 천안함 일반공개 1년째

추모위원회는 무엇보다 먼저 천안함을 찾아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기로 하고 추모위원회 홈페이지(www.memorial326.com) 게시판에서 견학행사 참가 대학생들을 모집했다.

이날 견학에 참여한 대학생 가운데 10명만 추모위원회 소속 대학생들일 뿐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참가한 대학생들이다. 이들 사이로 중년의 어머니 4명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자녀들과 천안함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꼈기에 자식뻘 대학생들과 함께 행사에 참가했다.

해군 제2함대는 지난해 천안함 피격 사건의 주범을 북한으로 지목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천안함 잔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특별히 천안함 피격 1주기를 기리기 위해 열린 이날 견학행사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내기 바빴다. 해군 제2함대 측은 고위급 장성까지 직접 나서서 대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일이 질문에 답하며 사건 정황을 설명했다.

대학생들이 던지는 질문은 대부분 인터넷에 떠도는 음모론에 근거한 것들이 많았다. 군 관계자들의 설명은 선박 건조 기술, 항해술, 군사 전략에 이르는 전문성이 강한 부분까지 아우러졌다. 박 중령을 비롯한 해군 제2함대 측의 설명이 이어졌다.

"조사발표에 대해 불신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따지듯 묻는

해군 제2함대를 찾은 대학생들이 천안함 프로펠러 주변에서 박재식 중령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람들도 있었지만 천안함의 실체를 보고 나면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직접 보면서 확인하고 고쳐 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안함을 공개한 이유입니다."

계급장에 은색별이 자리 잡은 한 장성도 대학생들의 질문 공세에 차분하게 답변을 내놓았다.

"더운물 찬물 섞어 놓으면 잘 섞이지 않습니다. 바닷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이를 '음파가 전달되는 매질(媒質·힘과 같은 물리적 작용을 전달하는 매개물)의 차이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물속의 음파도 이런 매질의 차이에 의해 길게 전달되기도 하고 짧게 전달되기도 해 음파탐지기가 바닷속 모든 적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보고 나니 적극적 관심 필요성 느껴"

기계공학을 전공했다는 한 대학생이 던진 "천안함이 잠수함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질문을 던진 이 대학생은 곧바로 이러한 내용을 자신의 수첩에 적어 내렸다.

오수정(22·가천의과학대 3년)씨는 "천안함을 직접 보고 나니 대학생들이 이 사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이곳에 왔다.

강수진(21·숙명여대 3년)씨는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는 마음보다는 조사 발표의 진위에만 여론의 관심이 쏠려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직접 보고 안 보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직접 와서 보고 느끼며 천안함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대학생들은 천안함 잔해 추모 방문에 이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해군 장병들을 기리는 추모비를 찾았다. 평택 해군 제2함대의 모항이 내려다보이는 추모비 맞은편에는 제2연평해전 당시 침몰했다 인양된 참수리호가 자리 잡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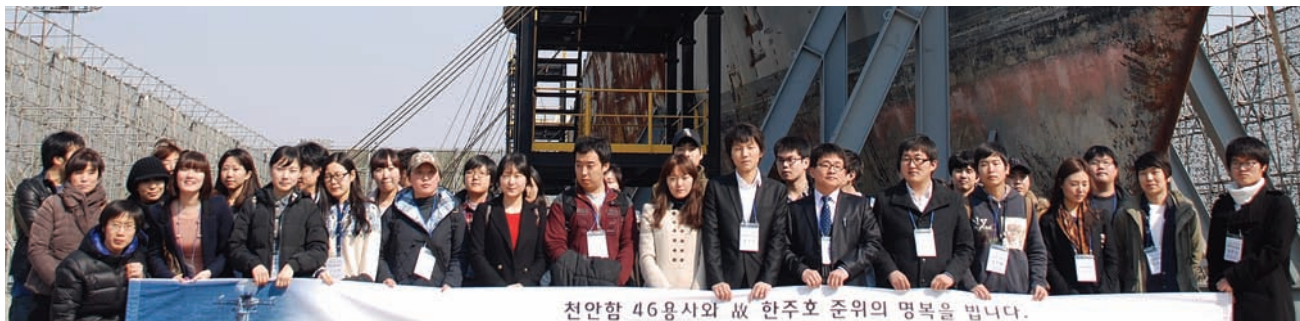
"안타까운 죽음 앞에 나를 돌아보게 됐다"

이길호(23·성균관대 4년)씨는 "대한민국의 함정이 두 대나 본래 있어야 할 바다에 있지 못하고 육지에 전시 된 모습이 너무 슬퍼 보인다"며 "전사한 장병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게 그런 순간이 닥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천안함 견학 행사를 관리하는 국방부 정책홍보과 이광순 사무관은 "국가안보의 절박한 필요성은 직접 보는 것과 간접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정말 다르다"며 "천안함 견학 행사에 일반인도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정리했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문동희(28·전북대 4년) 천안함피격1주기추모위원회 공동대표는 "오는 3월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되는 '천안함 피격 1주기 대학생 추모공연'까지 우리 추모위원회에서는 2주 동안 국립대전현충원 참배와 같은 천안함 1주기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우리 세대 대학생들과 함께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장병 모든 분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G

글·김방현 (대학생 웹진 〈바이트〉 편집장)

'천안함피격1주기추모위원회' 홈페이지 www.menorial326.com

같은 또래였던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자 3월 12일 천안함을 찾은 대학생이 천안함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前 천안함 민군 합조단장 윤덕용 KAIST 명예교수

“누군가 양심선언? 앞으로도 없을겁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1주기를 맞아 바빠진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윤덕용 KAIST 명예교수다. 윤 교수는 지난해 다국적 전문가들이 참여한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장을 맡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해 냈고, 의혹과 오해를 줄이는 데 앞장서왔다.

이경민 기자

윤석용 교수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란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흔들림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윤덕용 교수님,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국방부로부터 ‘윤 교수님 인터뷰는 어려울 것이다. 고단하실 만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사전경고’를 들었던 터라 인터뷰를 청하는 전화조차 조심스러웠다.

고단할 만도 했다. 윤 교수는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장을 맡았던 지난 4~7월 말 이후에도 잇따른 의혹 제기 속에 수많은 언론과의 인터뷰, 설명회 등을 통해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알리는 데 몸을 사리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1972년 재료공학과 교수로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 몸을 담은 뒤 KAIST총장까지 역임하며 평생 과학자의 길을 걸어온 그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혀내는 민·군 합동조사단장으로서 진실 규명과 더불어 진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왔다.

윤 교수는 뜻밖에도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다. 파수꾼의 소명 때문일 것이다. 기자와 서울에서 만난 날도 경기도 평택시 제2함대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방송인터뷰를 마치고 바삐 오는 길이었다.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장으로서 조사 과정은 물론 각종 의혹 제기로 인해 심적 부담도 컸을 텐데요.

“어느 정도 부담은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어요. 장병들이 소중한 목숨을 바쳤고 98금양호 선원들도 희생됐습니다. 그에 비하면 내 고생은 별거 아니었고, 무엇보다 결론이 확실했기에 소신을 갖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장 활동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면.

“천안함 선체 손상과 변형 상태, 선체에 묻은 흰색 흡착물질 등으로 보아 일찌감치 어뢰공격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확실한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미국 전문가 등이 어뢰 발사실험을 통해 어뢰 일부가 남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폭발원점을 중심으로 쌍끌이 어선으로 수색해 결정적 증거인 북한제 어뢰추진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쌍끌이 어선 선장은 동해에 침몰한 공군 전투기 잔해도 90퍼센트까지 수거한 실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도 경탄

해 마지않았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에는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함께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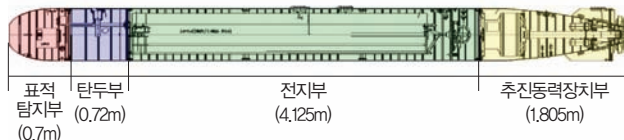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북한에서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서 시작하니 결론을 합리화하는 근거만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증상을 ‘편향확증(Confirmation bias)’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들은 무시하는 오류입니다.

당시 우리 조사단은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2백50킬로그램 티엔티(TNT)의 수중 6미터,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미터에서 일어난 비접촉 폭발’로 천안함이 침몰했고, 어뢰추진체와 천안함 몸체에 남은 동일성분의 흡착물질, 북한의 어뢰설계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CHT-02D어뢰공격에 의한 수중 비접촉 폭발’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동안 그 어뢰추진체가 북한제인지, 천안함을 공격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9월 천안함 백서 발간 이후에도 추가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수출용 카탈로그의 CHT-02D어뢰의 사진을 보면 1970년대 구소련제 어뢰를 모방해 연두색과 검은색, 빨간색으로 칠을 했는데, 네티즌들이 어뢰추진체 공개 당시 찍어 인터넷에 올린 확대사진들 중 일부에 연두색 페인트조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형태뿐 아니라 색상까지 CHT-02D어뢰란 흔적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어뢰는 각양각색의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최근 천안함 폭발원점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어뢰추진체를 찾은 곳은 우리가 폭발원점으로 계산한 곳이었습니다.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는 물에 떠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 폭발 후 조류에 의해 떠내려가다 침몰했지만 폭발 순간 천안함에서 떨어져나온 망원경이며 PC 등은 그대로 가라앉아 폭발원점에서 다량 발견됐습니다.

어뢰추진체 부품을 찾으려던 쌍끌이 어선이 끌어올린 PC에는 그것을 사용하던 천안함 생존 병사 이름(오동환 상사)까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폭발원점에서 수거된 PC

폭발원점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은 초병들의 진술 때문인데,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간의 감각보다 물적 증거가 우선한다고 봅니다.”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어뢰 CHT-02D

가장 최근 의혹으로 제기된 어뢰추진체 스크루 구멍에서 발견된 가리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어뢰추진체 발견 당시 우리는 그 ‘결정적 증거’를 발견 당시 상태 그대로 보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부식에 관해 논란이 일 것을 알면서도 어뢰추진체를 절단해야 하는 부식상태 확인 검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센티미터 스크루 구멍 안에서 흰색흡착물들과 함께 붙어 있던 가리비 조각까지 헤집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리비 조각에 대해 한국패류학회의 박영재 회장이 ‘백령도 부근에서 자생하는 비단가리비’란 소견을 밝혔습니다. 다른 바다에 있던 어뢰추진체를 옮겨온 것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제 결론을 뒤흔들 만한 의혹제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 교수는 “많은 증거가 북한의 어뢰 공격이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공인된 전문가 집단의 결론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까지 조작됐다는 일부의 주장은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행스러운 것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천안함 의혹제기가 확실히 줄었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신뢰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어뢰추진체 발견 이후 ‘조작’이라며 언젠가 ‘양심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공격을 받던 일을 떠올렸다.

“천안함 피격 사건 1주기가 다가오지만 ‘양심선언’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힌 것이니까요.” G

글·박경아 기자

“제 아들 보상금 바다의 방패로 삼아주시길”

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기탁한 1억으로 중기관총 18정 구입

천안함 피격 사건 1주기를 맞아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 98금양호 선원 등을 기리는 추모식과 위령탑 제막식 등 다양한 추모행사가 개최된다. 천안함 46용사의 어머니가 기탁한 성금으로 구입한 기관총 증정식과 청소년 해양수호대 해상작전 체험 행사 등 보다 많은 국민이 함께 하는 의미 있는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

“아들아, 너는 잃었지만 다른 조국의 자식들은 지켜내마.” 아들 사망보상금을 방위성금으로 내놓은 윤청자 여사가 아들의 묘석 앞에서 흐느끼고 있다.

윤청자 여사가 기탁한 성금으로 해군이 구입한 K-6함정용 중기관총. 몸체에 새긴 ‘3·26 기관총’이란 글귀가 선명하다.

“국민들의 애도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이 돈 1억원 작지만 무기 구입에 사용하여 우리 영해 영토 한 발짝이라도 침범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자식새끼 하나 지키지 못한 죄 많은 어미 올림

지난해 6월 청와대 방문길에 이런 내용의 메모와 함께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희생된 아들 고 민평기 상사의 사망보상금 1억원을 내놓은 윤청자(68) 여사. 지극정성으로 키운 막내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회한이 담긴 성금은 조국의 아들딸을 지키는 무기로 거듭난다.

당시 윤 여사를 비롯해 천안함 46용사 가족을 청와대 오찬에 초청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 누구보다 내가 고맙습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윤 여사의 나라사랑에 감동한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얼마 후 8백98만8천원의 성금을 보내오자 윤 여사는 “고귀한 돈을 하루도 집에 둘 수 없다”며 이 돈마저도 다음 날 해군 제2함대에 기탁했다.

윤 여사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건 지난해 1월. 몇 달 만에 외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광장에 마련됐던 천안함 46용사와 98금양호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격려 메시지 벽보. 이들의 1주기를 맞아 다시 한 번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행사가 이어진다.

박을 나온 민 상사는 북한이 백령도 인근에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는 소식에 곧바로 차를 돌렸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못 먹이고 아들을 배웅한 윤 여사가 아들을 다시 만난 것은 지난해 4월, 이미 아들 몸의 온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아들이 너무 추워 보여 안아주려 했던 윤 여사는 주변의 제지로 하지 못하고 아들 시신을 감쌌던 태극기를 아들의 분신인양 간직하고 있다.

윤 여사는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까지 부정하는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용기도 보여주었다.

윤 여사는 특히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조사 8대 의혹'이란 서신을 보낸 직후 참여연대 사무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심장이 타들어간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렇게 용기와 소신을 가진 어머니로 아들 잃은 슬픔을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윤 여사는 네티즌 사이에서 '초야의 애국지사' '여걸'로 불리기도 했다.

해군은 윤 여사가 기탁한 성금으로 구입한 18정의 K-6 함정용 중기관총을 제2함대 초계함 9척에 각 2정씩 장착할 예정이다. 이 총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벌어진 2010년 3월 26일을 기리는 의미로 몸체에 '3·26 기관총'이라는 글귀가 새겨진다. K-6 중기관총은 구경 12.7밀리미터, 최대 사거리 6천7백미터로 분당 6백 발을 발사할 수 있다.

해군은 이 '3·26 기관총'의 기증식을 3월 25일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 초계함 영주함(1천2백톤급)에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진행한다. 이날 기증식에는 윤 여사를 비롯해 천안함 46용사 유가족 및 해군 주요인사 등 2백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G

글·박경아 기자

천안함 1주기 추모행사들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준위 전사 1주기 추모식

3월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는 국가보훈처 주관의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준위 전사 1주기 추모식'이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천안함 46용사 및 한주호 준위 유가족, 천안함 생존 승조원, 일반 시민 등 2천5백여 명이 참석한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유가족과 천안함 생존 승조원, 해군 특수전여단(UDT/SEAL) 장병들이 전사자 묘역을 참배한다.

청소년 해양수호대 해상작전 체험

천안함 46용사 모교 학생 46명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해양수호대는 천안함 피격 사건 1주기인 3월 26일부터 1박2일간 군함에 편승해 개인별로 해당학교 전사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해군의 서해 경비작전을 직접 체험한 다음 자유수호 다짐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제막식

1주기 추모식 다음 날인 3월 27일에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연화리 해안에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제막식이 거행된다.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천안함 유가족 및 승조원, 국회의원, 해군·해병대 대표장병들이 참석하며 천안함 46용사 모교의 후배들인 청소년 해양수호대도 이 자리에 참석한다.

고 한주호 준위 동상 제막식

3월 30일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양공원에서 한주호 준위 동상 제막식이 개최된다. 고 한주호 준위 유가족 및 친지, UDT(수중파괴대) 동지회, 해군·해병대 대표 장병, UDT/SEAL 장병과 역대 특수전여단장 등 2백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의 하나로 연간 훈련성적 등 최고의 UDT로 평가받은 장병에게 해군참모총장이 한주호상(賞)을 수여하고, 유가족이 꽃다발을 전달한다.

금양호 희생자 위령비 제막식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서해상에서 침몰한 어선 98금양호 희생자 위령비가 4월 2일 인천시 중구 항동 역무선부두에서 제막식을 갖는다. 4월 2일은 98금양호 침몰 1주기가 되는 날로, 유족들은 이날 제막식과 함께 위령제를 지낸다. 98금양호는 백령도 해역에서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조업현장으로 돌아가던 중 대청도 서쪽 56킬로미터 해상에서 캄보디아 화물선과 충돌, 침몰해 탑승선원 9명 중 2명은 숨졌고 7명은 실종됐다.

문의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02-819-6621~3

순국장병 자녀 돌보는 '천사모' 만든 홍석보 일지학원 이사장

"유자녀들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장병의 자녀들을 돕는 국내판 '키다리 아저씨'가 있다. 경기도 화성시 비봉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일지학원 홍석보 이사장이다. 얼마 전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 뉴질랜드에 가 있는 홍 이사장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일지학원

홍석보씨는 순국장병 유자녀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다. 순국장병 유가족 돌보기에 앞장서고 있는 홍씨는 지난해 천안함 피격 후 '대한민국 수호천사 (순국장병)유자녀를 사랑하는 모임'인 '천사모'를 발족했다.

홍씨가 이처럼 유자녀 지원에 발 벗고 나선 것은 그 역시 군인 자녀였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육군 대령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월남전에 참가하셨던 아버지께서 부상을 당해 한국으로 후송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회복되셨지만 만약 그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더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이런 경험으로 홍씨는 누구보다 유가족들의 슬픔을 공감한다. 유가족 후원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2002년 연평해전이 발생한 후였다. 월드컵 개최로 나라가 축제 분위기일 때 연평해전이 터졌다.

"연평해전으로 여러 명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가장을 잃은 아이들을 보면서 누군가 이들을 돌봐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에 장학금 후원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장학금을 주겠다고 제의하니 유가족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며 안 믿었다고 한다. 일지학원 직원들이 유가족들에게 "홍석보 이사장님이 군인 자녀 출신으로 돕고 싶은 마음에 결정하신 것"이라며 일일이 설명했다. 같은 군인 가족 출신이란 말에 유가족들의 의심의 경계가 풀렸다. 그렇게 홍씨의 유가족 사랑이 시작됐다.

군인의 아들로서 유가족 슬픔에 공감

홀로 유가족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던 중 2010년 천안함이 폭침했다. 이들 역시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은 홍씨는 지인들과 뜻을 모아 지난해 10월 '천사모'를 결성했다. 홍씨가 천사모 회장을, 정태경 여주대학교 총장과 윤장혁 화일그룹 회장이 공동으로 부회장을 맡았다. 각계의 인사 19명이 천사모 회원으로 동참했다.

현재 천사모가 지원하고 있는 순국장병 유자녀는 30명 가까이 된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유자녀 외에 지난해 공군정찰기 추락사, 해군 링스헬기 추락사 등으로 순국한 장병의 유자녀에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홍씨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다 순국한 장병들의 자녀들을 내가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같이 지원을 확대했다고 한다.

유자녀 장학금은 5세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장기간 지원된다. 유치원부터 시작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년 1백만원씩, 대학에 입학하면 매년 2백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은 홍석보 이사장과 천사모 회원들이 힘을 모아 충당하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원하면 유학까지 지원한다. 홍씨는 "순국장병의 자녀들이 대부분 어린 경우가 많다"며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라도 원하는 사람은 전원 뉴질랜드 유학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일지학원은 뉴질랜드 정부 인가를 받은 스포츠경영전문대학 CSMC(Canterbury Sports Management College)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운영 중이다. 홍씨는 자신이 설립한 뉴질랜드 대학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에게 학비는 물론 기숙사비, 식비 등 유학에 드는 비용을 일체 후원하고 있다.

대학생은 원하면 유학도 지원… 현재 30명 돌봐

이미 2명이 뉴질랜드에서 유학 중이다. 연평해전 부상자 이해영 원사의 아들과 연평해전 전사자 고 한상국 중사의 아내가 그들이다. 한 중사의 아내는 남편이 전사한 후, 대학을 다니다가 영어를 배우고 싶다며 뉴질랜드 유학을 희망했다고 한다.

천안함 실종자 구조 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의 딸에게도 뉴질랜드 유학 장학증서를 전달해 놓은 상태다. 언제든 유학 오고 싶을 때 오라고 문을 열어놨다고 한다. "현재는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너무 커서 못 오고 있다"고 홍씨는 밝혔다.

연말에는 유가족들에게 쌀도 보낸다. 천사모는 지난해 12월, 유가족 17가구에 '애국의 쌀'이라 이름 붙인 쌀 한 가마씩을 전달했다. 올 연말에도 쌀을 보낼 예정이다.

홍씨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다"라며 아버지같이 살뜰한 마음을 보였다. 여전히 그는 군 관련 사고가 터지면 직원들과 함께 유가족들을 찾아가 도와줄 게 없는지 살피고 있다.

"유가족 자녀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27~28년간 지원해야 합니다. 부담스러운 일이겠지만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되더라도 큰아들에게 장학금 후원을 지속해 달라고 부탁해 놓았습니다."

천안함 피격 때 육군에 복무하던 큰아들은 올해 2월 제대했다. 작은아들도 현재 뉴질랜드에서 유학 중이지만 앞으로 군에 입대할 것이다.

장성한 두 아들을 둔 부모로서 유자녀들의 사정이 남일 같지 않

일러스트·남동윤

은 홍씨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유공자 자녀들을 돕는 재단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유가족들을 만나보면 지원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당장 가장이 없으니 겪는 어려움이 많죠. 이 아이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누군가 도와줘야 합니다. 남들이 다 가는 유치원부터 시작해 대학까지, 심지어 유학까지 다녀와야 합니다. 이를 제가 맡아 지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홍씨의 후진 양성은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일지학원의 정재장학회는 유도를 하는 체육생들과 장애인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홍씨는 이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유족 자녀 지원에 더욱 힘쓰고 싶다고 말한다.

연말에는 유가족에 '애국의 쌀' 전달

"매년 군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따져보니 순직하는 경찰이나 군인을 포함해 1년에 평균 7~8명의 유자녀가 발생하더군요. 앞으로는 다른 부분 지원보다도 유자녀 돌보는 데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홍씨는 아직도 유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일이 많다. 나중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유가족 자녀들과 함께 백두산을 올라보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한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란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위해 전사한 분들의 자녀들에게 힘이자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자녀들이 잘 커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요." G

글·이제남 기자

추모 음반 〈백령도 물새〉 작곡가 김병환씨

“46용사 명복 빌고 유족들도 위로”

이경호 기자

천안함 피격 당시, 노래로 사람들을 위로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 작곡가 김병환씨가 최근 천안함 추모 음반을 냈다. 왼쪽부터 작사가 최옥, 작곡가 김병환, 가수 장한나.

“심청이 넋이 담긴 백령도 파도 위에 달빛은 고요한데… 엄마를 잃었느냐. 네 짝을 잃었느냐. 물새들 울음소리 피를 토하는구나… 님 오기를 기다린다. 물새야 울지 마라”

천안함 피격 1주기를 앞두고 전사한 46명 장병을 추모하는 트로트 가요 음반이 발매됐다. 2월 18일 발매된 추모 앨범은 〈백령도 물새〉다. 타이틀곡 ‘백령도 물새’는 장병들을 물새에 비유해 전우를 잃은 동료들의 참담한 심정과 숨진 장병들의 명복을 비는 내용으로 구슬픈 곡조가 눈시울을 자극한다.

마지막 구절 ‘님 오기를 기다린다. 물새야 울지 마라’의 님은 고인이 된 장병과 곧 다가올 남북통일 등 두 가지의 뜻을 담았다고 한다. 김병환 한국가요작가협회장이 곡을 붙이고 작사가 최옥(전 MBC 라디오 국장)씨가 가사를 썼다.

음반 2백50장 인천시 · 백령도 주민들에 무료 배포

김병환 회장은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노래로 그 감정을 달랜다”며 “작년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보며 작곡가로서 이런 사건을 하나의 노래로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작곡 취지를 밝혔다.

발매된 음반 2백50장은 인천시와 백령도 주민들에게 무료 배포했다. 유족들을 노래로써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란다.

김 회장은 또 “노래 제목을 ‘백령도 물새’로 정한 것은 피격 당시 ‘새떼’ 논란도 있었고 백령도에 물새가 많은 점도 이유가 됐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46명 용사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 작사가 역시 “천안함 46명 용사의 명복을 빌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에서 가사를 썼다”며 심심한 애도를 표했다.

노래를 부른 가수 장한나씨는 “가수나 작곡가, 작사가 모두 노래를 할 때는 주인공이 돼야 한다”며 “가슴에서 피어나는 비애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국민이 함께 느꼈던 뼈아픈 감정을 노래에 담았다”고 전했다.

한편, 앨범에는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의 포격으로 큰 피해를 당한 연평도의 한을 노래한 ‘눈물의 연평도’도 실렸다. G 글 · 이제남 기자

〈오래되지 않은, 오래된 기억! 천안함!〉 추모다큐 만든 윤홍선 감독

“이념 빼고 사실만을 영상에 담았다”

뉴스파인더

천안함 1주기 추모 다큐멘터리를 촬영 중인 윤홍선 감독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 추적과 함께 유가족의 삶과 애환 등 천안함 사건을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이다.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을 추모하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있어 어떤 내용이 담길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진영 인터넷연합언론인 뉴스파인더가 제작 중인 〈오래되지 않은, 오래된 기억! 천안함!〉(가칭)은 지난해 천안함 사건 발발 배경부터 군의 조사내용과 관계자 증언 등 사건의 진실 추적과 함께 유가족의 삶과 애환 등 천안함 사건을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서해에서 발발한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호전적 성향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해군 장병들의 희생과 활약은 최근 많은 젊은이로 하여금 해군 지원을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천안함 46용사 사이버 추모관(http://www.navy.mil.kr/bbs/ucc/memorialMain.html)에는 그들의 넋을 기리는 네티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아픈 역사 잊지 말고 간직해야”

다큐 제작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윤홍선 감독은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을 추모하고,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래되지 않은, 오래된 기억! 천안함!(가칭)〉을 제작하게 됐다”고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는 6·25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역사의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지울 수 없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천안함 피격사건은 국민들이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한다.”

이 작품은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다. 언론 보도내용에 의존하지 않고, 서해와 해군 제2 함대사령부 등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념에 편향되지 않은, 사실만을 영상에 담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난 2006년 한국영화계의 문제점을 다룬 미니 다큐멘터리로 두각을 나타낸 윤홍선 감독은 같은 해 부산콘텐츠마켓 CF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2008년까지는 삶의 모습을 그리는 인물다큐에 집중하는 한편 최근까지 CF 및 뮤직비디오 등 수많은 작품을 연출했다.

윤 감독의 이번 작품은 천안함 피격 사건 발발 1년인 오는 26일에 앞서 온라인 뉴스사이트 뉴스파인더 및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글·박필선 (뉴스파인더 기자)

문병옥 해군3함대 사령관 (前 합조단 대변인) 기고

죽음으로 안보의 기틀 다진 46영웅들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식을 크게 바꾸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한반도 평화 지속을 기대하던 우리 국민은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한동안 잊고 있던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깨우쳤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젊은 죽음들이었지만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은 우리 국가안보의 기틀을 다시 다지는 계기로 승화될 것이다.

3월 26일은 지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하고, 우리 해군 46명이 전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필자는 지난해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 대변인으로 조사과정의 모든 것을 지켜봤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국군과 우리나라가 더 강하게 거듭날 해법을 제시했다. 그것은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던 안보에 대한 국론일치(國論一致)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대한민국을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뜨렸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방향타(舵)를 잃었고, 46명의 천안함 용사를 죽게 한 주범을 속히 밝혀야 했음에도 군 당국의 초기 상황처리 미흡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건의 원인을 둘러싼 각종 억측과 루머가 나돌았고, 북한 소행을 밝히는 증거가 있음에도 친북세력의 무분별한 언동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우리 군은 이런 상황에서 통렬한 성찰과 전우의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얻고자 했다.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는 객관적·과학적 진리

천안함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은 총 73명의 조사관(한측 49명, 미국·영국·호주·스웨덴 24명)으로 구성돼 55일간 활동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과학수사·함정구조관리·폭발유형분석·정보분석 분과로 나눠 밤낮으로 조사에 몰두했다.

수십 차례의 현장검증과 모의실험으로 범인의 실체가 윤곽을 드러낼 무렵 사건 해역에서 북한의 어뢰추진체가 발견됐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단서였기에 그동안 제기됐던 온갖 의구심을 해소하리라 확신했다.

합조단은 또 지난해 9월 13일 천안함 피격사건의 최종보고서인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사건의 주범은 북한이라고 확인, 발표했다.

외국 전문가들도 '천안함은 북한의 소형 잠수함에서 발사된 음향유도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침몰한 것'이라는 사실에 전원 동의했다. 북한이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아도 해명할 수 없는 객관적·과학적 결과였다.

국민이 바라는 강군으로 국군은 환골탈태 중

그러나 합조단의 조사결과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북한의 대남적화 야욕을 간과해 왔던 일부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쉽지 않았다. 그들에게 천안함 피격사건은 과학적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념적 문제로 변질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념적 이유로 조사결과를 믿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학적 조사결과로 설득하기란 북한이 자백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허점을 노리며 끊임없이 도발해 왔다. 청와대 습격,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858기 폭파, 강릉 잠수함 사건, 제1·2 연평해전, 대청해전, 지난해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 도발형태도 다양하다.

우리 군은 적과 싸워 이기는 군이 되겠다고 "Fight Tonight"을 외쳐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행동과 노력이 부족했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에도 군은 실전적 교육훈련에 전념하지 못했고, 첨단무기의 성능을 과신해 적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측면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작전도, 무기도, 군대조직도, 문화도 다 바뀌어야 하며, 변화의 시대에는 변화에 창조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가가 모든 일에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국군의 강도 높은 변화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발족했고, 국방선진

조선DB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대우조선이 해군에 인도한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의 모습.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은 동시에 1천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

화추진위원회가 보강돼 지난 3월 8일 '국방개혁 307계획'이 발표됐다.

계획에는 작전효율성을 고려해 행정간소화는 물론 현장 지휘관의 권한이 보장되고, 합동전력을 유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했으며, 모든 교육훈련은 극한 상황을 상정해 '사례연구' 식의 반복숙달로 체질화를 꾀했다. 정신전력 함양을 위해 모든 군인은 항재전장(恒在戰場) 의식을 갖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의 신념을 다지게 됐다.

군의 이 같은 변화과정의 바탕에는 천안함이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이 국군을 진정한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다. 국민이 바라는 군대다운 군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된 것이다.

"불안정한 평화 일깨워준 천안함 영웅은 영원하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로마의 군사전략가 베게티우스의 말처럼 평화 유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집중되고,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은 굳세졌다.

지구촌에 유례없는 3대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내부단속에 나선 북한은 경제난, 체제불안, 국제적 고립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북한 지도층은 대남적화 통일만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카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 군과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군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보의식에도 불을 지폈다. 국민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적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과, 북한과의 적대적 공존관계가 '불안정한 평화'였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다시 도발한다면 분명 과거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천안함의 46용사가 우리와 함께하면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군은 앞으로 국방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며, 군이 달라졌다는 것을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이다.

국민도 역사 속에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던 원인은 안보에 대한 국론분열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더 이상의 논란은 끝내야 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정교한 국가안보 전략이 요구되는 때다. 안보의 해법은 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을 물리치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답이라고 본다. G

● '국가브랜드위원회 대학생 서포터즈'인 나는 …

이름 안시준
나이 26세
소속 연세대 경영학과
사는 곳 서울시
좌우명 세상에 완벽한 이념은 없다.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듣자.

개인미디어
블로그 kennamja1.blog.me
페이스북 sijun.an
트위터 kennamja

● 'G20세대 사이버자문단'인 그는 …

이름 박진수
나이 25세
소속 인제대 임상병리학과
사는 곳 김해시
좌우명 지금 이 순간에도 난 누군가를 위해 살 수 있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개인 미디어
블로그 blog.naver.com/wolves2000
페이스북 wolves2000
트위터 liberalism_Gadi

세계를 돌며 한국 잘 알리고 있나요?

"요즘은 제주도 올레길 홍보 중입니다"

주저 없이 세계무대에 도전하는 G20세대와 소통하고 이들의 창조적 비판을 정책수립과 수행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단이나 서포터즈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브랜드위원회 대학생 서포터즈' 1기 안시준씨가 최근 발족한 'G20세대 사이버자문단' 1기 박진수씨의 체험담과 각오를 듣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다음은 'G20세대' 안시준씨가 쓴 'G20세대' 박진수씨의 인터뷰 기사다.

지난 3월 14일 청와대에서 'G20세대 사이버자문단'의 1기 자문위원 위촉식이 있었다. 경복궁의 수려한 담장을 따라서 청와대로 향했다. 한 무리의 젊은 청년들이 있었다. 그들 중 내가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넨 이는 박진수씨였다. 위촉식이 끝난 뒤 그와 인터뷰를 하게 됐다. 그의 친절한 미소에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할지 잠시 혼동이 왔다.

지난 3월 14일 청와대에서 위촉식을 가진 'G20세대 사이버자문단'.

안시준(이하 안) G20세대란 무엇을 말하나요.

박진수(이하 박) G20세대란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정신에 불타는 젊은이'라고 명명되었는데요. 2011년 현재를 살고 있는 저희 세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오늘 위촉된 'G20세대 사이버자문단'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박 G20세대 사이버자문단은 정부가 G20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발족했습니다. 우리 1기 자문단의 경우 봉사, 창업, 자연과학, 예술 등 분야의 젊은 학생 15명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박 저희는 각 분야에서 젊은층의 목소리를 낼 거예요. 한국의 교육관과 문화 속에서 배운 것들을 세계를 돌며 체험하고 검증한 저희 세대의 이야기를 전달해 좀 더 긍정적인 한국의 모습을 만들고 싶어요. 때론 비판도, 때론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싶어요.

대학에서 임상병리학을 전공하는 박진수씨는 환경과 의료 자원봉사, 인턴십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그리고 현지주민에게 직접 이익을 돌려주는 '공정여행' 등 다양한 글로벌 체험을 바탕으로 청와대 G20세대 사이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안 어떻게 사이버자문단에 함께하게 됐는지요.

박 제가 봉사활동을 처음 하게 된 것은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때였어요. 매서운 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기름제거를 하며 '이게 봉사구나'라는, 어떤 말로도 표현 못할 감동을 느꼈어요. 그 후 환경관련 봉사활동을 이어 오다 2008년 필리핀에서 3개월간 인턴십에 참여하며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게 됐어요.

귀국 후 기생충 수업을 듣다 책에 나오는 기생충 대부분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서식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관심이 인도, 캄보디아 등지의 의료봉사까지 저를 이끌었고 유럽 동남아 배낭여행과 같은 경험들이 계기가 되어 사이버자문위원까지 온 것 같아요.

안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한국이 자랑스러웠던 적은 언제였는지요.

박 한국이 자랑스러웠던 적은 수도 없이 많아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건 '한국인의 성실성'인 것 같아요. 어디서든 '진짜 성실하게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저도 경험했어요. 호주의 라벨스티커 공장에서 현지인이랑 채용경쟁을 해 현지인이 쓰레기통을 한 번에 한 통씩 버리는 동안 전 지게차로 한 번에 6~7개씩 비워 버렸거든요.

영어는 제가 조금 부족했지만 결국 누가 남았을까요? 그 밖에도 조수미씨 공연을 보고 나온 호주인들이 제게 '한국 최고'라고 말할 때, 캄보디아 오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비정부기구(NGO) 단체들을 만났을 때 자랑스러웠어요. 그곳에서 '꽃보다 남자' '보행금지' 같은 우리 말들이 쓰인 티셔츠를 보았는데, 그런 말들이 사람 가슴을 그렇게 따뜻하게 해 주는지 몰랐어요. 그게 한국의 자부심인 거 같아요.

안 세계의 젊은이들과 한국의 젊은 세대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박 지난해 저만의 '갭이어(Gap year)'를 갖기 위해 휴학을 했어요.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하기 전 갭이어를 갖고 해외여행이나 다양한 경험을 쌓아 자신에게 맞는 적성이나 전공을 결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공부에 흥미를 가지며 직업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는 문화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안 마지막으로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국이란 국가브랜드와 관련해 한 말씀 해 주신다면?

박 식상한 말이지만, 해외에 나가면 우리 개개인 모두 '외교관' 이라는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대한민국'을 평가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 여행가방에는 대한민국 국기가 항상 걸려 있고 지금은 제주도 지도를 들고 다니며 '올레길'의 아름다움을 목에 핏대 세우며 홍보하는 중이랍니다.

그를 만나러 가서 내가 한 일은 단 한 가지였다. 그의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에서 나오는 힘 있는 이야기와 한국의 브랜드, 한국인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듣는 것만으로 열정과 진중함이 느껴졌다. 그는 앞으로 무엇을 하든 지금의 봉사하며 사는 행복한 순간들을 잊어버릴 수 없다고 했다. 그에게 봉사란 도움을 받는 사람들과 노동과 물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었다. 만나는 설렘과 친해지는 설렘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봉사였다. G

글 · 안시준 (국가브랜드위원회 대학생 서포터즈 1기 기장)

조선DB

아동보호시설인 '그룹홈'에서 식사 제공 봉사를 하고 있는 '죽우회' 회원들은 "어머니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봉사는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굿네이버스 식사 봉사 '죽우회'

"아이들에게 '엄마표' 밥상 차려줍니다"

죽우회는 2000년부터 식사 제공 봉사를 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김미자씨가 뜻이 맞는 어머니들을 모아 자원봉사모임인 '죽우회'를 만들었다. 다양한 자원봉사를 해온 어머니들은 아동보호시설인 '그룹홈'을 알게 된 후, 식사 제공 봉사에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즉 재능은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 그룹홈. 굿네이버스는 국제 구호개발 NGO다. 이곳에 모인 김미자(55)씨를 비롯한 8명의 '죽우회'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줄 만두 1천 개를 금세 빚어냈다.

조복순(49)씨는 "그룹홈에 김치가 많은데 놔두면 쉴 것 같아서 모조리 만두로 빚은 후 아이들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에 얼려두었다"며 어머니 특유의 잔반 처리 감각을 뽐냈다.

죽우회는 10년 동안 매주 목요일 그룹홈에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챙겨주고 있는 자원봉사자 모임이다. 이 그룹홈은 주로 학대, 방임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가정에서 분리해 일시 보호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그룹홈에 입소한 아이들은 상황이 나아지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지거나 그룹홈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머물기도 한다.

"삐쩍 말랐던 아이가 통통하게 살 오를 때 가장 기뻐"

죽우회는 2000년부터 그룹홈 식사 제공 봉사를 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김미자씨가 뜻이 맞는 어머니들을 모아 자원봉사모임 '죽우회'를 만들었다. 동사무소 새마을문고 봉사부터 노인복지관 식사보조, 중증 장애인 보조까지 다양한 자원봉사를 해온 어머니들은 그룹홈 아이들을 만난 후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어머니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외로운 아이들에게 엄마의 마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주고 싶었다.

죽우회 회원인 아홉 명의 어머니는 서너 명씩 조를 짜고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한다.

김미자 회장은 "집에서 흔히 먹는 떡볶이나 샐러드를 해줄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데, 그럴 때 마음이 짠하다"라고 말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까를 고민하는 죽우회 어머니들에게서 아이들은 '엄마'의 향기를 느낀다.

김희자(47)씨는 "센터에 들어서면 엄마한테 안기듯 폭 안겨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럴 때 가장 흐뭇하다"고 말했다. 김미자 회장도 "어느 날 그룹홈의 한 아이가 다가와서 '(아줌마는) 우리 엄마랑 닮았어요'라고 말하는데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말했다.

그룹홈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니들의 눈이 반짝거렸다. 김미애(52)씨는 6년 전 부모의 방임 때문에 비쩍 마른 채로 그룹홈에 왔던 5살짜리 여자아이 이야기를 꺼냈다.

김씨는 "몸에 힘이 없어 벽을 잡아야 간신히 몸을 일으키던 아이가 그룹홈에 와서 잘 먹고 통통해져서 나갈 때가 제일 뿌듯하다"고 말했다. 박정심(44)씨는 갓난아기가 들어올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박씨는 "태어난 지 백일도 안 된 아이가 그룹홈에 들어오면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예쁜 아기가 어떻게 여기에 왔나' 싶어 마음 한 켠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미자 회장도 "그중 한 아이에게 백일잔치를 해줬는데, 상을 차려 놓고 엄마들이 마음이 아파서 뒤돌아 울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 회장은 또 "이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보다 그룹홈 아이들이 더 예쁘다"며 "(그룹홈에 들어오는 아이들 가운데는)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성실하고 착한 아이들이 많다"고 아이들을 감쌌다.

여러 해 동안 식사 봉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매번 같은 요일에 일정한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들의 지지 덕분에 가능했다. 5년째 그룹홈을 방문하고 있는 최은식(51)씨는 "가족들이 목요일은 엄마가 바쁜 날이라고 이해해 준다"면서 "몇 년 전 몸이 많이 아프고 난 후부터 집에만 있고, 안으로 숨어드는 성격이 됐었는데 봉사를 하면서 마음을 열게 되니 가족들이 나보다 더 좋아하고 응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자씨도 "엄마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자랑스러워 하더라"며 "엄마가 작은 봉사를 하고 있는 걸 잘 기억했다가 우리 아이들이 커서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러려면 엄마가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다시금 봉사의 각오를 다졌다.

조선DB

자원봉사 모임 '죽우회'의 김미자 회장은 "봉사활동이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줄 수도 있다"고 했다

"상처받고 그룹홈에 오는 아이가 없어지는 게 소원"

어머니들은 꾸준히 봉사를 하니 한결 마음이 여유로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나혜정(47)씨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한 날에도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풀린다"며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내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깨닫는다"고 말했다.

죽우회 초창기 멤버였으나 잠시 쉬다가 한 달 전부터 다시 봉사를 시작한 임성순(54)씨는 "몇 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목요일이 되면 죽우회 생각이 나서 마음에 걸렸다"며 "다시 시작할 때 조금 망설였지만 마음은 편안해졌다"며 웃었다.

김미자 회장도 봉사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할 것을 조언했다. "일주일에 한 번쯤 친구랑 수다 떨기로 한 약속은 잘 잡으면서도 2~3시간 봉사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봉사활동을 하면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리는 경우도 많은 데 말이에요."

죽우회 어머니들의 소원은 더 이상 상처를 받아 그룹홈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없어지는 것이다. 최은식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조복순씨는 "그래도 사람 손이, 사랑이 부족한 아이들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아이들이 그룹홈에 와서 마음을 달래고, 위로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룹홈을 운영하는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지부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김정미 관장은 "어머니들의 손맛이 좋아서 아이들이 목요일만 기다린다"며 "그룹홈이 채 생기기도 전부터 봉사를 해온 죽우회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자랑했다. G

글 · 류정화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기자)

길게 늘어선 모래톱 위에 있는 송림. 강원도 삼척 해안가에서 찍은 이 한장의 흑백사진은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표현을 최소화하는 사진으로 유명한 케나의 작품으로, 솔섬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다. 2007년 강원도에서 촬영한 〈솔섬〉.

공근혜갤러리

2004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촬영한 〈언덕위의 나무〉 〈숲의 가장자리〉 〈눈 덮인 나무〉. (왼쪽부터)

마이클 케나 사진전

그가 왔다… '솔섬'이 예술이 됐다

법정스님의 절제와 무소유 정신을 이미지로 마주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지난 3월 20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공근혜갤러리에서 열린 마이클 케나의 '철학자의 나무' 전시를 보고 있노라면 새삼 법정스님이 그리워진다.

'깨달음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깨어남이다. (중략) 진정한 앎은 말 이전의 침묵에서 그 움이 튼다.'

지난해 입적한 법정스님의 잠언집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에 나오는 글귀다. 침묵과 명상을 통해 존재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길이 열린다는 스님의 가르침이 오롯이 가슴 속에 전해 온다.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서정적인 나무 풍경

주변 나무와 풍경을 담았지만 그것이 풍경에 그치지 않고 내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이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정적인 대상을 렌즈에 담았지만 어쩐지 그 대상은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생동감을 내뿜으며 관람객에게 말을 건다.

50여 점의 출품작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이 2007년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에서 찍은 〈솔섬〉이다. 짙은 회색빛의 하늘과 물, 그리고 수평선을 가르며 길게 줄지어선 까만 소나무 숲 ….

변치 않는 물과 하늘, 소나무가 기막힌 구도를 연출하며 그곳에 서 있다. 강한 흑백의 대비 속에 안정적인 수직선과 수평선 구도,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듯한 여백에서 진한 여운이 묻어 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중국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 전세계 곳곳에서 렌즈에 담은 나무 풍경이다. 작가가 찍은 〈솔섬〉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사진가들이 몰리는 관광명소가 됐다. 나무는 변치 않는 존재다. 특히 소나무는 추위에도 잘 견디며 대나무와 매화나무와 함께 '겨울철 세 벗'을 의미하는 '세한삼우 (歲寒三友)'에 속한다.

지난 2004년 작가가 일본 홋카이도를 찍은 눈 덮인 나무 풍경 시리즈 역시 하나의 수묵화를 보는 듯 잔잔하고 서정적이다. 작가는 대상을 연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는다.

한국 풍경은 어떤 느낌일까. 지금껏 한국 풍경을 찍은 사진으로 20여 점이 있는데 이번 전시에는 태안반도 꽃지 해수욕장 사진과 솔섬 사진 두 점이 걸렸다. 작가는 아직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예정된, 한국 풍경만을 담은 마이클 케나의 사진전이 더욱 기대된다.

글 · 이향휘 (매일경제 문화부 기자)

마이클 케나.

북위에 맞선 장수왕의 결단

'알토란' 인력·물자만 챙기고 땅은 버려라

북중국의 강국 북위가 북연을 침략하자, 이에 맞서 장수왕은 대대적인 군사활동에 들어갔다. 북연이 망하면 고구려는 북위와 국경을 맞대야 하는 껄끄러운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노련한 장수왕은 북연의 영토를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북연의 인원과 물자를 고구려로 이동시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쳤다.

북위의 침략에 맞서 북연에 군사를 파견한 고구려군은 화룡성을 대대적으로 약탈했다. 고구려의 군사행동은 북연의 물자와 인력이 적국인 북위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광개토왕이 죽고 장수왕이 지배하던 시기의 고구려였다. 435년 북위(北魏)의 공격이 거듭되면서 북연은 국가의 존재가 위태로운 상황에 봉착했다. 북연의 통치자 풍홍(馮弘)은 고구려 장수왕에게 사신을 보내 사태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고구려로의 망명을 요청했다.

436년 2월 북위가 북연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요서의 화룡성(和龍城·오늘날 朝陽)을 향해 진군했다. 장수왕도 군대를 북연으로 보냈다. 가라앉는 배 북연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었다.

북연 수도의 물자와 인력이 고스란히 북위로 넘어갈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불확실했다. 하지만 너무나 큰 이권이 걸린 문제였다.

북연의 멸망은 강국 북위와의 완충지대 소멸을 의미했다. 그렇게 되면 향후 북위와 국경을 맞대야 했다 고구려는 소극적으로 북연 황제와 그 일족의 망명만 받아들일 게 아니었다. 요하(遼河)를 넘어가 북연의 고급 인력과 물품 등을 가져와 자국의 문화적·정치적·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야 했다.

그해 5월, 북연의 수도인 화룡성을 사이에 두고 북위군과 고구려군이 대치했다. 북연의 수도 화룡성 안에서는 친고구려파와 친북위파 간의 내분이 일어났다. 둘은 자기편의 군대를 서로 먼저 끌어들이려 했다. 친북위파가 선수를 쳐 성문을 열었다. 하지만 의심 많은 북위군은 주저했다.

이 틈을 타 고구려군이 돌입해 들어가 성을 장악했다. 북연의 황제로부터 화룡성의 모든 정보를 넘겨받은 고구려는 성의 상황을 훤히 알고 있었다. 먼저 고구려군은 북연의 무기고로 향했다. 무기고를 열고 고구려에서 입고 온 옷을 다 벗고, 북연의 A급 갑옷으로 바꾸어 입었으며, 무기도 정교한 새것으로 교체했다(삼국사기).

그후 고구려 군대는 맹수로 변하여 북연의 왕궁을 향해 나아갔다. 과연 여자와 사치를 좋아하던 후연의 모용희는 북연에게 화려한 왕궁을 물려주었다. 약탈이 허락되었다. "원하는 대로 가져라." 화룡성의 화려한 궁정과 중원에서 살다가 온 귀족들의 대저택이 병

북위가 북연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요서로 진군하자 장수왕도 군대를 북연으로 보냈다. 장수왕은 노련했다. 북연의 땅을 북위에 내주는 대신 가치 있는 인력과 물품은 고구려가 가로챘다. 그 양과 질의 측면에서 고구려사에서 최대였다. 전쟁을 해가면서까지 요서 땅을 차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들의 사냥감으로 변했다.

고구려 장군 갈로맹광은 전시에 병사들에게 약탈만이 유일한 즐거움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선왕인 광개토왕 대부터 전쟁에서 고생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전장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묵묵히 왕을 따라준 것은 이러한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화룡성의 아름다움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두 팔 가득 보물을 빼앗고, 가능하다면 후궁으로 달려가 미녀를 안고 싶은 일념뿐이었다. 약탈자 무리들은 성난 파도와 같았다. 장군, 장교, 병졸할 것 없이 광란의 잔치에 뛰어들었다. 군대만큼 재미없는 집단은 없다. 승전 후 약탈은 군의 사기를 높이는 특효약이다.

치밀한 계산 아래 국익을 선택한 장수왕

약탈이 끝나고 그 대상이 된 화룡성의 북연인들을 집합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남녀 모두 군복을 입히고 거대한 대열을 만들었다. 모두 데리고 고구려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성 밖에 북위군이 버티고 있는데도 강행된 너무나 대담한 시도였다. 하지만 장수왕은 모든 일을 기획했고, 그것을 치밀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철저히 계획적으로 수행된 약탈도 드물 것이다.

고구려 기병은 대열의 외부에 있고, 북연인들은 행렬의 가운데 서게 했다. 갈로맹광이 이끄는 고구려 기병이 대열의 후면을 맡았고, 수백 대의 수레로 움직이는 벽을 만들었다.

고구려로 향하는 80리에 달하는 장대한 행렬이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북위군은 고구려 기병의 행렬을 끝내 공격하지 못했다. 당시 북위는 인간 백정 태무제(太武帝·408~452)가 다스리고 있었고, 세계 최강의 기병을 보유하고 있었다. 태무제(탁발도)는 북방의 유목제국 유연에 대한 대대적인 원정을 지휘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육한 장본인이었다.

그는 425년에도 기병을 이끌고 고비사막을 횡단해 유연을 습격했고, 이후에도 인간 사냥대를 조직하고 초원으로 향했다.

태무제가 고구려 군대의 행렬을 덮치지 못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화룡성의 북쪽 거란족의 본거지인 시라무렌강 유역은 광개토왕 이후 고구려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북위군은 고구려 휘하에 있는 거란족 유목민 기병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숙군성(오늘날 廣寧)도 북위군의 발목을 잡았다. 숙군성은 화룡성의 바로 동쪽에 있는 고구려의 군사기지였다.

401년 이곳을 차지한 광개토왕은 서방의 전진기지로 활용했다. 화룡성을 약탈한 아들 장수왕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소중한 유산 숙군성을 잘 활용했다.

충분한 식량과 마초, 병력과 전마를 그곳에 비축해 두었고, 고구려의 장대한 행렬도 일단 그곳을 향했을 것이다. 싸움이 벌어지면 고구려는 숙군성에 있는 병력과 군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북위군에게도 배후에 고구려군이 버리고 간 화룡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고구려는 북위군이 그곳을 기지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히 황폐화시켰다.

〈삼국사기〉는 고구려군이 떠난 후 화룡성에 열흘 동안 불길이 꺼지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북위군은 고구려군 행렬을 추격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 사건의 결과로 북연의 수도에 거주하던 대부분의 고위 계층과 군인·호구들이 고구려에 이입됐다. 북위는 북연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가치 있는 인력과 물품은 고구려가 가로챘다. 그 양과 질의 측면에서 고구려사에서 최대였다. 장수왕은 노련했다. 북위와 전쟁을 해 가면서까지 북연의 요서 땅을 지킬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G

글·서영교 (중원대 박물관장)

| 글 싣는 순서 |

〈New Trend G20세대〉

세상에 외친다… "내가 가면 길이다"

"미개발 분야에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일에 성공하고 싶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 분야를 장악하고 싶었다."

박지영 컴투스 대표는 2003년 미국 타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바일게임 분야를 택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박 대표는 1998년 컴투스를 설립했고, 1999년 국내 최초로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는 세계 최초 휴대폰용 자바 게임 제작을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에 수십 종의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개발 기술력과 산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7월 미국 타임지에 의해 '세계 14대 기술 대가'로 선정됐고, 영국 모바일콘텐츠 전문지 ME가 선정한 '세계 TOP50 여성 경영인'에 세 차례(2007, 2009, 2010년)나 뽑혔다.

이 책은 박지영 대표를 비롯해 G20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6명을 뽑아 그들의 도전과 경험, 라이프 스타일을 생생하게 담았다. KOICA 국제협력봉사요원 김남호,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 환경운동가 이재근, WEST 프로그램 인턴 방수아, 국가브랜드위원회 코리아 브랜드 커뮤니케이터 박지현 등이 바로 그들이다. G20세대는 'G20정상회의'를 기념하며 세계적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칭한다.

제각각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들에게서 창업, 세계여행, 환경봉사활동 등 다양한 체험을 들을 수 있다. 그들의 도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였다는 것, 편해 보이는 길이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 실패를 탓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했다는 것 등이다.

이 책은 단순히 성공담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또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사회적 과제를 제시하고 희망을 이야기한다.

서문에서 김난도 교수는 "G20세대라는 지칭은 어떤 현상을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도출해낸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가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 어떤 방향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냐는 지향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책은 G20의 글로벌 세대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Generosity(관용), Green(녹색)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여 젊은이들을 정의한다. 자기표현에 충실하고 창조적인 괴짜정신을 가지고 있는 한편,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기여나 바른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세대,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눈부신 열정을 지닌 오늘날의 G20세대를 만나보라.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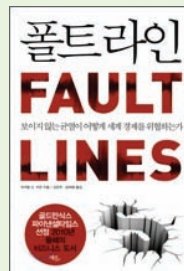
글·이미령 인턴기자

새로 나온 책

산중 암자에서 듣다

전국 25개 암자에서 듣는 깨달음의 이야기

박원식 지음, 주민욱 그림
북하우스 펴냄, 1만5천원

20년여 동안 '자연과 문화'를 이야기한 저자 박원식씨가 전국 방방곡곡 외진 산속에 자리 잡은 25개의 작은 암자들을 순례했다. 스님들의 말씀을 통해 욕망에 얽매이지 않으며 사는 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자연, 암자, 옛 스님들의 흔적, 산속 사람이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를 가슴으로 듣고 우리에게 전해 준다.

폴트 라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어떻게 세계경제를 위협하는가

라구람 G. 라잔 지음, 김민주·송희령 옮김
에코리브르 펴냄, 2만3천원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경제학자 라구람 G. 라잔이 세계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힌다. 저자는 위기의 원인을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의 심화와 미국 정부의 과도한 신용제공에서 찾고 있다. 저자는 더 안정된 세계경제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합리적이면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희망의 스위치'를 누르세요

글과 그림 · 최영순

당신이 지금 지쳐 있다면 다른 사람을 힘나게 하는 말을 건네보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힘이 되지만 나에게는 더 큰 힘이 된다.
– 김영식의 <10미터만 더 뛰어봐> 중에서

조선DB

조선DB

뮤지컬 〈메노포즈〉의 홍지민, 김숙, 혜은이.

"딱 내 이야기야!" 중년 여성들의 공감

뮤지컬 〈메노포즈〉

전 세계 1백만 관객에게 웃음을 가져다준 뮤지컬 〈메노포즈〉. 지난 1년간 전국 22개 도시를 순회하며 열풍을 일으킨 〈메노포즈〉가 더욱 화려해진 무대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갱년기 우울증의 근원인 폐경을 유쾌하고 코믹하게 풀어낸다. 백화점 란제리 세일 코너에서 우연히 만난 네 사람은 레이스 브래지어를 놓고 서로 옥신각신한다. 그녀들은 기억력 감퇴, 발열, 홍조 등, 중년 여성들의 공통적 고민 폐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폐경이 절망으로 가득찬 인생의 막다른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메노포즈〉는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년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아 많은 관객의 공감을 끌어낸다. 1960~80년대 팝송인 'Only you', 'YMCA', 'Lion Sleeps Tonight', 'What's love got to do it' 등의 익숙한 멜로디가 등장, 중년 관객들의 향수를 건드리며 감수성을 자극한다.

당당한 중년여성을 모티브로 한 강렬한 색감의 럭셔리한 무대와 화려한 의상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혜은이, 이영자, 홍지민 등 스타들의 열연을 감상할 수 있다. G

정리 · 이미령 인턴기자

일시 2011년 5월 15일까지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관람료**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국가유공자 · 장애인 50퍼센트 할인 **문의** 뮤지컬해븐 02-744-4334

클래식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빈체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부산을 찾는다. 이번 공연은 라벨의 거울, 프렐류드 등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음악의 철학과 깊이, 감수성 모두를 깊게 표현해 내는 연주로 감동을 선사한다.

일시 2011년 4월 9일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4만원 B석 3만원 **문의** 02-587-7082

연극 〈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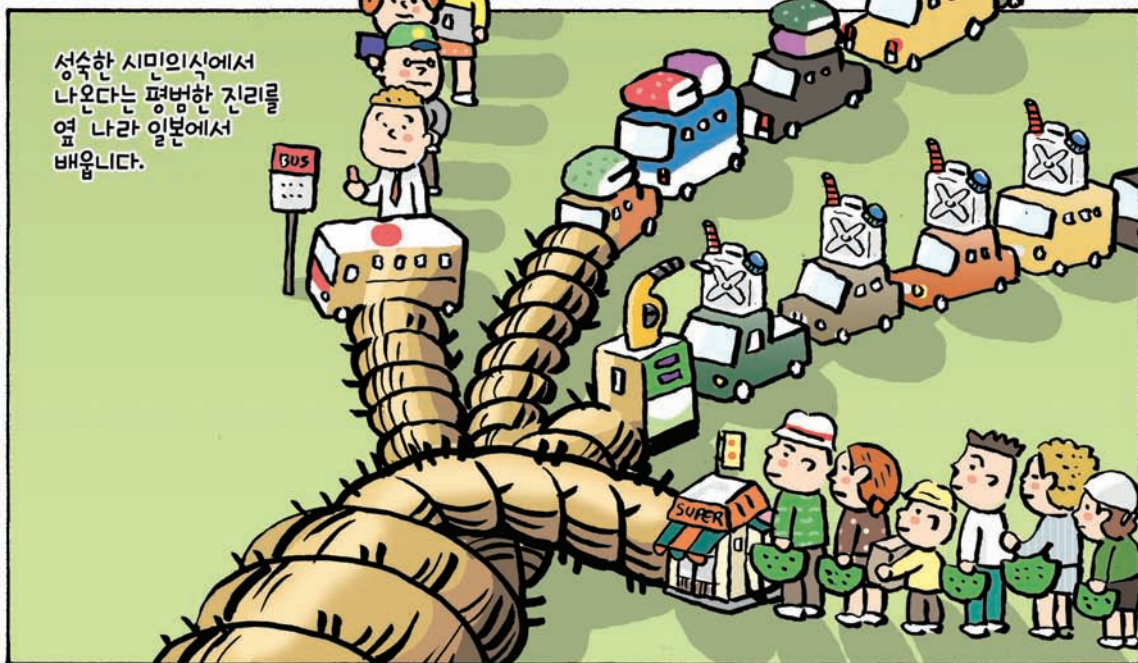
속수무책 딸의 마지막 러브레터. 사고뭉치 애자와 그런 애자를 쥐 잡듯 잡는 엄마 영희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애자〉가 연극으로 찾아왔다. 색다른 구성과 연출을 통해 관객에게 새로운 재미와 감동의 무대를 전한다.

일시 2011년 5월 8일까지 **장소** 인아소극장 **관람료** 전 석 3만원 국가유공자 · 장애인 50퍼센트 할인 **문의** 02-747-2151

3월 셋째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3월 6일~3월 12일

곡명	가수
1 미친거니 (Feat. 방용국)	송지은 (시크릿)
2 Tonight	빅뱅
3 나만 몰랐던 이야기	아이유 (IU)
4 Cafe	빅뱅
5 What Is Right	빅뱅
6 가질 수 없는 너	현빈
7 내꺼중에 최고	에이트 이현
8 바람이 분다	이소라
9 Dreaming (드림하이 OST)	김수현
10 Black & White	G.NA

슈퍼 에너지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작품정보 범죄, 드라마(미국) 116분 | 2009년 개봉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
출연 클린트 이스트우드
등급 12세 관람가

〈그랜 토리노〉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진정한 용기는 참회와 용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미국인들에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세상의 악과 맞서 용감하게 자신을 내던지는 터프한 영웅의 이미지로 각인돼 있다. 그러한 그의 이미지는 1960년대 부터 1990년대까지 5편이나 만들어졌던 〈더티 해리〉 시리즈의 형사 해리 갤러헌에서 온 것이다. 그는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들에 대해 법을 떠나 인간적인 분노를 드러낸다. 그 이미지는 형사라기 보다는 큰형이 동생의 잘못을 꾸짖듯 하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듯 하다. 그런 점에서 그는 한편으로 보수적이고 고집불통이고 낡은 이미지로 통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점차 물질화되고 혼란해져가고 부도덕한 미국사회를 살아가며 클린트 이스트우드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영화 〈그랜 토리노〉(Gran Torino, 2008)는 잊혀져 가는 영웅의 이미지를 재조명하며 진정한 용기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재고하게 하는 영화다. 주인공 코왈스키는 폴란드 이주민의 후손인 소수민족 미국인으로서 3년간 한국전에 참전했었고 13명의 중공군 소년병들을 죽이고 무공훈장을 받은 뼈아픈 체험을 갖고 있다. 50년간 포드 자동차에서 노동자로 일했고 사랑했던 아내와 방금 사별했다.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아들들과 불화하며 버르장머리 없는 손자, 손녀들에겐 정을 주기도 싫다. 그에겐 72년산 올드 그랜 토리노 자동차와 죽을 때가 다된 개 한 마리가 전부다. 그는 중국인들, 멕시코계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허름한 동네에서 외롭게 살아간다.

이 영화 〈그랜 토리노〉에서 노년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변화된 정의관을 보여준다. 복수 대신 누군가 희생함으로써 더 이상 비극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그 옆집에 사는 월남인들은 청소년 갱들로 인해 항상 시끄럽다. 특히 타오라는 소년을 갱단에 가입시키려고 치근덕거리는 월남갱들 때문에 코왈스키는 타오와 그의 누이 수를 보호하면서 점차 친해진다.

자신들의 일이 방해받자 월남갱들은 코왈스키 대신에 타오와 수를 린치하여 겁을 준다. 분노한 타오가 복수하려 하자 코왈스키는 그를 자제시키고 혼자 월남 갱들에 맞서 싸운다. 하지만 코왈스키는 오히려 총도 없이 가서 그들에게 벌집이 되어 죽게 되고 이를 알게 된 그 마을의 신부는 코왈스키가 스스로 희생된 것이라고 알게 된다. 그는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처럼 잔악한 범죄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준 것이다.

이 영화는 참회와 용서라는 새로운 주제를 던져줌으로써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주인공 코왈스키는 한국전에 참전하여 무고한 생명을 살육했던 아픈 전력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했다.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전투였지만 그 명분을 떠나서 생명을 살상했다는 경험이 옳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마지막에 그 빚을 갚는 방법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악당을 죽여서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정의를 구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항해왔던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정의관은 노년에 들어와 약간 변형된다. 그에게 여전히 사회정의감은 살아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대신 진정한 복수란 누군가 희생함으로써 더 이상 복수를 발생시키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진정한 영웅이란 멋진 복수가 아니라 깊은 사랑과 공동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해준다. G

정재형 (동국대 교수 · 영화평론가)

녹색구매와 중소기업 지원으로 더 큰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www.koppex.com

첨단기술 · 녹색구매

2011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제품과 녹색기술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공조달 전시회 개최
- 태양광, LED, 친환경 조달우수제품 등 기술개발제품을 직접 체험
- 해외수출 상담과 계약, 외국조달제도 소개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녹색성장시대의 공공조달 전시회로 새롭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11. 4. 13(수) ~ 4. 15(금) coex Hall A(구.태평양홀)

주최 | 조달청 Kbiz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

주관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후원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KOTRA, 에너지관리공단, KBS, YTN, MBN